

12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5583.25 (-26.70)	1148.40 (+11.57)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3.271 (+0.018)	1477.30 (+10.80)



글로벌 AI 동맹 속도
엔비디아·AMD 등
협력 확대
04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물가와 환율,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동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안전자산 선호 속 환율 변동 ▲금융시장과 자금시장 변수 등 세가지 측면에서 짚어본다. <편집자주>

에너지 공급망 ‘흔들’ 질어진 인플레이션 그림자

중동 사태와 경제 리스크

① 전쟁이 밀어 올린 유가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들쭉이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재점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실시간 유가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석유공사 오픈넷(Opinet)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각각 87.25달러, 91.98 달러로 집계됐다. 중동 전쟁이 시작되기 전(2월27일) WTI가 67.02, 브렌트유가 72.48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30%, 27% 급등했다. 두바이유는 같은 기간 배럴당 71.24달러→119.55달러로 68%나 상승했다. 중동 전쟁 여파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국제유가 급등에 물가상승 압력 기준금리 인하 시점 늦춰지거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제기 채권시장은 이미 금리인상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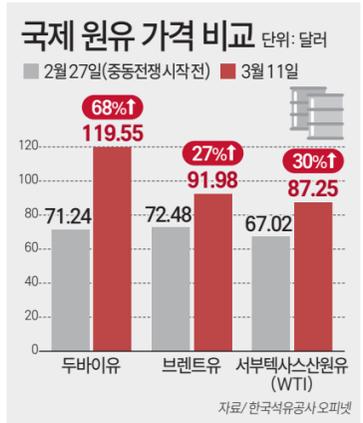
◆ 중동전쟁 후폭풍… ‘물가 급등’

이처럼 증가한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유는 전력·물류·석유화학 등 산업 전반의 핵심 원자재인 만큼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생산비와 운송비를 통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1973년 4차 중동전쟁 당시 석유 금수조치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경제는 ‘오일쇼크’를 겪었고 물가가 급등했다. 당시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72년 3.4%에서 1973년 8.7%, 1974년에는 12.3%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세는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기준 118.40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0% 상승했다. 생산자 물가도 지난해 10월 1.90%에서 11월 2.20%로 상승한 뒤 지난 1월까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생산자물가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로, 통상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 기준금리 2.5%인데 국제 3년물 3.2%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거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아진 이후 동결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금리인상을 반영하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 기준 3.253%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2.50%)를 감안하면 시장이 이미 2회(50bp=0.01%포인트) 이상의 추가금리 인상가능성을 선반영한 것이다.

한은은 과거 고유가 국면에서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2007년 1월 4.5%이었던 기준금리를 그해 7월과 8월 각각 4.75%, 5.00%로 올렸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7년 1월 1.7%였지만 ▲2월 2.2% ▲5월 2.3% ▲6월 2.5% ▲7월 2.5%로 상승한 영향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 압력이 커졌던 시기에도 금리를 인상했다. 2022년 2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평균 80달러였지만 3월엔 110달러 6월엔 113달러까지 뛰었다. 당시 물가상승률도 시차를 두고 반영돼 ▲2월 3.8% ▲3월 4.2% ▲4월 4.8% ▲5월 5.3% ▲6월 6.0% ▲7월 6.3%까지 올랐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美 무역법 301조, 기존 관세수준 유지 협의”

여한구 산업통상교섭본부장 “철강 등 232조에서 이미 관세 부과 제조업 공급과잉 문제 점검하는 것”



브리핑에서 “이번 301조는 한국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라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나 통상 압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취지인만큼 추가적인 통상 압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은 12일 출입기자단과의 긴급 백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 생산과 관련된 정책·행위·관행이 미국 상위에 부담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이다.

USTR은 조사 개시와 함께 각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하고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는 대법원의 관세 관련 위헌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를 위한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며 “이번 조사도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조사와 기존 품목별 관세 조차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4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빵·케이크 가격 인하 12일 서울 시내 두레쥬르(왼쪽)와 파리바게뜨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CJ푸드빌 두레쥬르는 이날부터 민생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빵과 케이크 등 주요 제품 17종 대상 공급가를 평균 8.2% 인하했다. 파리바게뜨는 13일부터 주요 제품 11종의 가격을 인하한다. /뉴스1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

재직·퇴직자 972명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서 원고 패소 판결 원심 확정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재직·퇴직자 강모씨 등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4면>

한화오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것이다.

대법원은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한다”며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고려하더라도, 근로 제공과의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 972명은 한화오션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다 퇴직했거나 현재 재직 중으로, 회사를 통해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정산받았다. 이들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한화오션이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성과배분 상여금’ 및 ‘경영평가 연계 성과 보상금’)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성과급도 임금으로 봐야 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바탕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데, 사측이 이를 누락했다는 주장이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사측)가 근속 1년마다 30일분이 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해,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함께 증가한다.

앞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퇴직자들이 제기했던 퇴직금 청구소송과 마찬가지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취지의 소송인 셈이다.

1·2심 재판부는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특성상 사측이 사업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 노동자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한화오션 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메트로 한줄뉴스



▲李 공소취소 거래설…與 “강력대응” vs 野 “탄핵감, 특검해야” /사진 뉴시스
▲李대통령 “靑 직원들 업무 과중…필요하면 정원 ↑”

▲전재수, 정청래 면담 후 부산시장 출마 공식화…본인 지역구엔 하정우 언급
▲“사기대출” 당선무효형 확정 받은 양문석…“헌재 판단 받아볼 것”

▲국힘 최고위에서 김어준 동영상 틈 김민수…장동혁·송인석 “특검해야”
▲“경기도지사 출사표” 추미애 “중도층 경쟁력? 걱정 안 해”

정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 휘발유 1800원 초반

산업부, '민생물가 관리 TF' 회의
현재 공급가 보다 낮은 수준 전망
종료시점 미정... "유가 안정 확인"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한 국내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공개하고, 금주 내 관련 고시를 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중동 상황 발생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지난 9일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으며 현재는 9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가격도 지난달 27일 대비 12일 휘발유는 1693원에서 1903원으로, 경유는 1592원에서 1924원으로 크게 올랐다. 약 2주 사이 휘발유는 200원, 경유는 300원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산정 방식은 기준가격(평시 공급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격),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MOPS: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 제세금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기준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석유공사에 주간 단위로 보고되는 가격"이라며 "중동 상황 발생 이전 평시 가격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유소 판매가격은 직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 실장은 "주유소는 지역별 임대료나 운영 방식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며 "공급가격을 통제하고 주유소 가격은 모니터링과 단속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최고가격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현재 공급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휘발유 공급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1800원 초반, 경유는 1900원대 초반, 등유는 1700원대 초반 정도"라며 "그것보다는 낮게 형성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은 2주 단위로 재설정된다. 양 실장은 "국제유가 반영 시차가 약 2주 정도이고, 너무 자주 바꾸면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진다"며 "필요할 경우 조정 주기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가격 급등 영향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변동률을 평탄화할 계획이다. 그는 "MOPS 가격이 3월 초 많이 튀었는데 단순히 곱하지 않고 변동폭을 평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전년(2025년) 같은 기간 수준 이상 수출도 제한한다. 정유사가 손실을 입을 경우, 정유사 손실입증을 토대로 사후 정산 방식으로 보전한다. 양 실장은 "정유사가 손실액을 입증하면 회계법인 검증과 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며 "분기별로 정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유소 가격은 시민단체와 석유공사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한다. 양 실장은 "전국 약 1만3000여개 주유소 가격이 카드 결제 데이터를 통해 오픈넷에 실시간으로 집계된다"며 "평균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격차가 과도한 주유소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판매가격 상승률 상위 주유소는 공개하고, 반복될 경우 담합·매점매석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은 관보 게재 시점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곧 고시를 발표하고 늦어도 이번 주 내 고시를 발표하고 14일 0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양 실장은 "주유소 재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재고가 많지 않아 고시 이후 2~3일 정도 지나면 소비자 체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 실장은 "언제 해제하겠다고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제 석유 수급 상황과 중동 정세 안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격이 특정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구조는 아니다"며 "유가 불안정 상황이 안정화되는 것이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해운업계, 항로 우회 등 물류 운송 총력전

HMM 안전한 대체항만 우회 방침
현대글로벌비스 인근항에 화물 하역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해운업계가 긴급대응에 나섰다.

HMM과 현대글로벌비스 등 국내 해운업체들은 선박 운항 위험이 커지면서 운항을 중단하는 한편 발이 묶인 선박의 경우 인근 항구에 화물을 하역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은 중동 노선 신규 화물 예약을 중단하고 항로 우회 조치에 나섰다. HMM은 지난 11일 화주고객에 대한 공지지를 통해 중동지역에서의 선박 및 선원, 화물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이미 중동지역으로 운송 중인 화물은 기존 항로 대신 안전한 대체항만으로 우회하는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체항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컨테이너당 1000달러가 부과되며, 대상 선박은 현재 인도~중동지역을 운항 중인 컨테이너선 3척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현대글로벌비스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완성차 운반선 1척에 실려 있는 차량을 인근 항에 모두 하역한 상태다. 이는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변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상황이 안정되면 선적해 운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글로벌비스 관계자는 "현재 중

동 지역의 물동량은 글로벌 전체 시장의 약 1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장기화될 경우 선박과 선원 등의 안전을 위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MSC, 머스크, CMA-CGM 등 글로벌 10대 선사는 3월초부터 이미 중동지역에 대한 운송을 중단해오고 있으며, 위험 증대에 따라 추가 비용 명목으로 컨당 2000~3000달러를 부과해오고 있다.

HMM 관계자는 "현재 중동지역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재개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며 "중동 외 지역은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



이란, 제3국 상선 등 공격범위 확대 유가, 급등락 반복... 불확실성 고조

전장 상황 긴박... 국제유가 오름세

원유 값이 다시 100달러 부근까지 치솟았다. 중동산두바이유의 경우 110달러를 돌파했다. 이 같은 국제유가 오름세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이른바 '성전' 태세를 내보이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페르시아만까지 제3국 상선에 대한 공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내 석유류 가격 급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최근 느닷없이 이란 종전을 언급하고 유가의 진정세 유도를 시도했다. 백악관은 이어 말을 재차 바꾸고 중동전의 지속을 시사한 상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기뢰를 실제로 설치했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기뢰 부설 가능성을 인지하는 민간 선박이 그곳을 지날 리 만무하다. 이미 앞서 11일 이스라엘·일본·태국 등 국적의 4척의 상선이 피격당했다. 또 이 해협과 멀리 떨어진 이라크 영해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원 1명이 숨졌다.

12일(한국시간) 북해산브렌트유 선물(올해 5월 인도분)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섰다. 오후 3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8.34% 뛴 배럴당 99.65달러에 거래됐다.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급등세를 보였다. 같은 시간 WTI 선물(4월 인도분)은 배럴당 6.87% 오른 93.24달러에 달했다. WTI는 6일과 9일 90달러대까지 폭등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종식 발언 등에 10일과 11일엔 80달러대로 내려앉은 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태국 상선 마유레나레호. /뉴시스

있다.

중동산두바이유(5월 인도분)는 11일 기준으로 배럴당 113.5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완화하기 시작한 2022년 상반기 이후 근 4년 사이 최고 수준이다.

유가 불안이 재차 고조되면서 환율도 뛰었다. 1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7원 오른 1481.2원에 주간(晝間) 거래를 마쳤다.

원유는 미달러화로 거래된다. 이에 유가와 환율의 동반 급등은 국내 기업·가계 구매력의 가파른 약화를 부른다. 특히 원자재를 비롯한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비용 증가, 가계의 소비 둔화가 불가피하다.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번 주 주춤했지만 여전히 리터(1)당 1900원 선이다.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직전의 가격과 비교해 1당 200원 넘게 오른 상태다. 기름이 바닥 상태에서 가득 주유시(50l 기준) 1만 원 이상의 격차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韓, IEA 비축유 방출 동참... 2246만 배럴

정부 "국제 석유시장 안정 기여"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역대 최대 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 결정에 한국이 동참한다. 정부는 총 2246만 배럴을 방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1일(파리 시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총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공동 방출(Collective Action)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은 전체 방출 물량의 5.6%에 해당하는 2246만 배럴을 할당받았다.

IEA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글로벌 석유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국가별 방출 물

량은 회원국의 전체 석유 소비량 비중에 따라 산정됐다.

이번 방출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4년 만에 이뤄지는 IEA 공동 대응이다.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1650만 배럴이 방출됐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큰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의 방출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걸프 전쟁 당시 494만 배럴을 방출한 이후 처음으로 대 규모 비축유를 풀게 된다. 이번 물량은 당시보다 약 4배 이상 많은 규모다.

정부는 방출 시기와 방식 등 세부 사항을 IEA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IEA와의 공조가 국제 석유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주요국과 긴밀히 대응해 민생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IEA는 1974년 석유 위기 이후 에너지 공급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32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IEA 사상 최대 규모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국제 유가는 급등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증가는 배럴당 91.98달러로 전장 대비 4.8%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증가는 배럴당 87.25달러로 전장보다 4.6% 상승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



‘고유가 취약’ 비금속 전망 위축... 반도체는 업황개선 기대

상장사 실적 업종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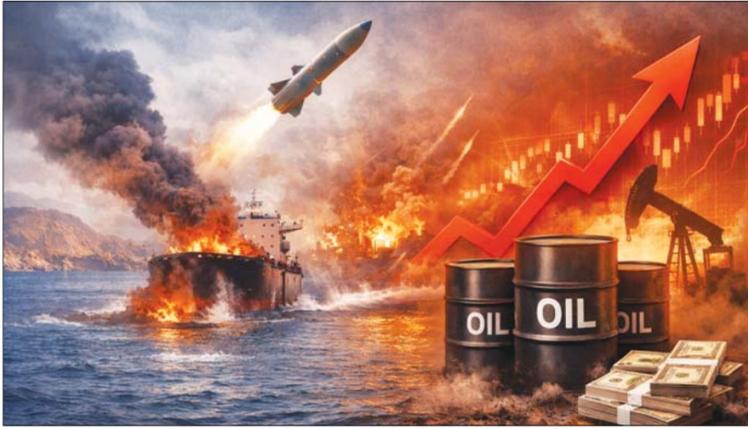
섬유·기계·장비 등 실적 눈높이 하락
전기전자, 반도체 힘입어 홀로 선방
분쟁 길어질수록 증시 변동성 확대
옥석 가리기 장세에 선별 대응 필요

미국-이스라엘,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국내 상장사들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인 만큼 기업의 실적 확인을 통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게 증권업계 조언이다.

◆유가, 기업 실적 발목 잡나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내 증권사가 전망치를 제시한 코스피 315개 상장사의 2026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는 541조964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작년 말(364조1690억원) 대비 48.8% 늘어난 규모다. 상향 흐름이 본격화하기 전인 작년 8월 말(272조4486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98.9%에 달한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실적 기대가 지난해 9월 이후 70% 넘게 상승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다만 가파르게 상승하던 실적 전망은 중동 전쟁 이후 주춤하는 모습이다. 지난 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지도부가 다수 사망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시장 전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매일 평균 21.1%씩 급등하던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이달 4일 542조7756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현재



ChatGPT로 생성한 ‘미국-이스라엘,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오르는 모습’

541조964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같은 변화는 업종별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고유가에 취약한 산업을 중심으로 전망치 하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273개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90조5321억원으로 지난 4일 대비 0.4% 줄었다. 특히 비금속 업종은 전망치가 4399억원에서 3202억원으로 27.2% 급감했다. 섬유·의류(-7.5%), 제약(-4.1%), 기계·장비(-3.9%), 금속(-1.3%) 등도 전월 말 대비 영업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반면 반도체 중심의 전기·전자 업종은 실적 기대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해당 업종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달 말 344조7040억원에서 이달 10일 기준 351조4325억원으로 2.0% 증가했다. 고유가 부담 속에서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실적 전망을 지탱하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KB증권은 메모리 공

급 부족과 AI 수요 확대를 반영해 삼성 전자 목표주가를 24만원에서 3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DRAM·NAND 가격 상승과 HBM4 출하 확대 등이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종별 격차 뚜렷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한국 기업의 전체 영업실적은 개선 추세에 있으나, 산업별 실적 격차는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S&P는 지난 5일 발간한 ‘한국: 업종별 격차 확대, 저점은 통과’ 제하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기업의 전반적인 신용등급 추이는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주도의 구조적 성장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석유화학, 철강,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공급과잉과 수요부진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S&P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2026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 기업 전체 실적과 수출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중동 분쟁이 추가 위험 요인으로 떠올랐으며 “한국의 전략적·상업적 원유 비축량은 충분하지만, 장기적인 공급 차질이나 지속적 가격 상승은 한국 전력공사와 같은 유틸리티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S&P는 “관세 비용, 투자 부담, 전기차(EV) 관련 정책 변화는 여전히 미국 시장에 크게 노출된 한국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도 정책적 가시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면서 시장 내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된 상태라고 짚었다.

◆선별투자로 투자 리스크 낮춰야

전문가들은 “기업의 실적이 대외 변수로 인해 달라졌는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미래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장 방향성은 당분간 국제유가 흐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도 나온다. 키움증권은 유가의 향방이 국내 증시의 뜸다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쟁 관련 뉴스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지수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내성이 형성되고 있으며, 실제 코스피가 급락한 이후 반등 과정에서 증권·기계·조선·반도체 등 기존 주도 업종이 지수 상승세를 웃도는 성과를 보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쟁의 향방 역시 시장 변수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쟁이 “아주 곧 끝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동시에 장기전 가능성도 시사해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때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80달러대 초반으로 내려왔지만, 사태 이전 대비 여전히 약 25%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전쟁 지속 기간에 따라 증시 조정 폭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신증권은 분쟁이 1~3개월 내 단기에 마무리될 경우 글로벌 증시가 약 10% 조정 이후 상승 추세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6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 20% 안팎 조정을 거친 뒤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갈 수 있으며, 1년 이상 장기화하면 30% 이상 하락하는 대세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현중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산 배분 관점에서 중동 분쟁은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경로를 강화하는 리스크 이벤트”라며 이란 사태 이후 높아진 물가 위험을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한 자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유가의 수준이 상당 기간 한층 높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면 연초 이후 안정된 디스인플레이션과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되돌리게 된다”며 “유가 안정화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착화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 된다”고 짚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

삼성KPMG “에너지·물류·AI 얽힌 복합위기... 주요 산업에 구조적 영향”

호르무즈 우려에 원유·해상 운송 불안
정유·석화·유틸리티 부담... 반도체 제한적
공급망 다변화·회복탄력성 확보 필요

이란전쟁이 에너지, 물류, 인공지능(AI) 기반 군사 기술이 결합된 복합 위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삼성KPMG는 12일 ‘자원·물류·AI 3대 축으로 본 미국·이란 전쟁’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 물류 축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내 주요 산업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지정학적 충돌

은 자원, 물류, AI 세 축에서 기존 분쟁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란은 주변국 에너지 시설까지 겨냥하며 자원 무기화를 강화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과 물류 흐름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AI가 실제 군사 작전에 활용되며 전략 자산으로 부상했다.

삼성KPMG는 이번 전쟁이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KPMG에 따르면 정유 산업은 단기적으로 정제 마진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는 원유 도입 비용 상승과 수요 둔화라는 이중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중동 지정학적 긴장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글로벌 원유 공급 불확실성을 높여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유틸리티 산업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전력 도매 가격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민자 발전사는 단기적으로 판매 단가 상승에 따른 수익 개선이 기대되지만 전기 요금 인상 압력은 제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은 항공 운송 중심의 물류

구조와 공급자 우위 수급 환경으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공정 원자재의 중동 의존도가 있는 만큼 전쟁 장기화 시 수급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융 산업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기업 현금흐름 악화로 금융권 대손 비용 증가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무역금융과 환헤지 상품 등 위험 관리 관련 금융 서비스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전쟁은 방위 산업 환경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AI 기반 무기 체계와 무인 전력의 전략적 활용이 강화되면서 관련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한

국방위 산업의 수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효율 중심의 글로벌 경제에서 ‘신뢰’와 ‘안보’가 비용이 되는 새로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며 “에너지·물류·기술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와 경쟁 구도를 재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저스트-인-케이스 기반의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metr

전쟁 끝나면 코스피 반등 여지... 고유가 부담은 지속

변동성 위기 수준 한 달째 지속
조기 종전盼 할인율 정상화 기대
국제유가 재반등에 부담은 여전

중동 전쟁 여파로 코스피 변동성이 한 달째 위기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쟁 조기 종료 시 할인율 정상화에 따른 반등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고유가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48% 떨어진 5583.25에 마감했다. 지난 3일 6165.15에 개장한 코스피는 중동 지역의 전쟁 여파로 5000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를 연속 반등하며 5600선을 회복했지만,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VKOSPI)도 약 한 달째 위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코스피가

5000선까지 밀렸던 4일에는 사상 최고치인 80.37을 기록했으며, 이후로도 공포수준인 60~70대를 유지 중이다. 통상적으로 변동성지수가 40을 넘어서면 급격한 주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포 구간’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란 사태가 단기간에 마무리될 경우, 공포로 확대된 할인율이 정상화되면서 상승 여력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염승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은 “단기간 내에 미국-이란 전쟁이 종료돼 리스크 발생 이전 할인율로 되돌림을 가정할 시, 코스피 적정 PBR(주가순자산 비율)은 2.18배, 지수 환산 시 6806포인트가 도출된다”며 “전쟁 조기 종료 시 업사이드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반면, 이날 외신에 따르면 밴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주식 전략가들은 최근 한국 증시에서 나타내고 있는 급등락 현상을 두고 “전형적인 버블 사례”라고 평가했다. 코스피가 12% 급락한 직후 다시 10% 반등하는 움직임이 아시아 외환위기,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시장 불안정성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국내 증시를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국제 유가도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9일 장중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119.48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마무리 단계를 언급하면서 배럴당 80달러대까지 눌렸지만, 국제 유가는 다시 90달러대로 올라섰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사상 최대 규모의 비상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

글로벌 AI 반도체 동맹 속도... 엔비디아·AMD 등 협력 확대

엔비디아, 오는 16일 'GTC 202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동 관심

오는 18일 리사 수 AMD CEO 방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남 전망

다음 주 엔비디아의 연례 기술 콘퍼런스 'GTC 2026'과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AI 가속기 시장 1, 2위 기업의 수장이 글로벌 행보에 나서면서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엔비디아 행사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는 방한기간중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간의 동맹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오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해 10월 31일 경북 경주시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함담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6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GTC 2026을 개최한다. 젠슨 황 CEO는 16일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로드맵을 전격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HBM4'를 탑재할 차세대 플랫폼 '베라루빈'의 개발 상황과 실물 공개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내년 출시를 앞둔 '베

라 루빈 울트라'의 세부 사양 공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GTC에서 처음 언급된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파인만(Feynman)'의 상세 정보 공개 여부 역시 주요 관심사다. 파인만은 베라 루빈의 후속 제품으로, 대규모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효율을 높인 차세대 칩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CEO의 회동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 회장은 이번 GTC 2026에 처음 참석해 황 CEO와 차세대 엔비디아 플랫폼에 SK하이닉스의 HBM 공급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클레라 회동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의 리사 수 CEO는 18일 방한해 삼성전자와 네이버 경영진 등을 만날 예정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인 HBM 공급 확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6세대 HBM인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 바 있으며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에도 가장 많은 HBM을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AI 가속기 시장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며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하이닉스는 수출과 양산 속도, 고객 다변화 성과가 향후 경영 성과와 직결되는 만큼 반도체 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업계, 불확실성 해소했지만... 노사협상 새로운 쟁점 될 듯

한화오션 퇴직자 최종 패소

성과급, 평균임금 미포함 재확인 일부 성과급은 포함... 논란 여지

노조, 성과급 임금성 인정받기 위해 취업규칙에 지급기준 명문화 가능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기업 경영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인다.

기업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근로 제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기존 법리가 재확인되면서 기업들의 퇴직금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노사 협상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법원 2부(주심 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재직·퇴직자 97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 기준이 영입이익과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에 연동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 제공의 직접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잇따른 판결로 관련 소송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잠재적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판례로 경영 리스크가 일정 부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모든 성과급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

지는 남아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생산직 노동조합과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2001년과 2009년에는 노사 합의 자체가 없어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대법원은 "회사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봤다. 성과급의 정기적인 지급 의무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또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 관행으로도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1월엔 삼성전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업무 목표치 달성에 따라 지

급하는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며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삼성전자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던 점도 강조했다.

이 때문에 향후 노사 협상 과정에서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조 측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받기 위해 지급 기준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문화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이번 사안이 '노란봉투법'과 맞물리면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과정에서도 성과급 지급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라면을 살펴보는 모습. /뉴스

식품업계 물가안정 동참 라면·식용유 가격인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식품업계가 잇따라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

1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 삼양식품, 오투기, 대상 등 주요 식품기업들이 정부의 물가안정 및 민생 회복 기조에 부응해 라면과 식용유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와 푸레쥬르 등 주요 베이커리도 가격인하에 동참했다.

농심은 4월 출고분부터 라면과 스낵 16종의 가격을 평균 7.0% 내리기로 했다. 대표 제품인 안성탕면(3종)은 5.3%, 무파마탕면은 7.2% 인하한다. 육개장라면, 사리곰탕면, 후루룩국수, 후루룩칼국수, 감자면, 짜왕, 보글보글부대찌개면, 새우탕면과 쫄면스낵(4종) 등도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삼양식품도 다음 달 1일부터 삼양라면 오리지널(봉지면·용기면) 2종의 출고 가격을 평균 14.6% 인하한다. 오투기 역시 4월 출고분부터 라면 8종의 출고가를 평균 6.3% 인하한다. 가격이 내려가는 제품은 진짬뽕, 굴진짬뽕, 크림진짬뽕, 더핫열라면, 마열라면, 짜슐랭, 진짜장, 진짬뽕 등이다.

식용유 제품 가격도 낮췄다. 오투기는 오투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0.5l·0.9l)와 오투기 해바라기유(0.5l·0.9l) 등 식용유 4종의 출고가를 평균 6% 인하한다. 대상은 청정원 올리브유·카놀라유·해바라기유 등 소비자용(B2C) 제품 3종, 총 6개 제품의 가격을 3~5.2% 인하하기로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metro

"7월 중순 이후 기존관세 수준 복원 구상"

>> 1면 '美 무역법 301조 조사...'서 계속

여분부장은 "301조와 232조는 별개의 법적 수단"이라며 "철강 등은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 관세가 부과돼 있고 이번 301조는 그와 별개로 제조업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보는 조사"라고 설명했다.

여분부장은 "현재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모든 국가에 10%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고 있다"며 "이 기간 동안 301조 조사 절차를 진행해 이후 개별 국가별 관세 조치를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1조는 일반적으로 1년 가까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4~5개월로 조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122조 조치가 종료되는 7월 중순 이후에는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 수준으로 복원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이슈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구광과 같은 개별 기업 사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를 기준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분부장은 "작년 11월 14일 한미 간 합의한 관세 수준은 대부분 품목 15%"라며 "미국도 이 합의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 "301조는 일반적으로 기존 관세 위에 추

가되는 '누적 관세' 구조이지만, 미국도 기존 합의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합의의 정신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제기해온 대미 무역흑자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여분부장은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국내 수요보다 많은 생산을 하고 수출한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한국의 경우 대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중간재·부품 수출이 늘어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제조업 부흥과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통계와 논리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분부장은 미국 USTR이 곧 강제 노동과 관련된 301조 조사에도 착수한

다는 계획을 전했다. 해당 조사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여분부장은 "강제노동과 관련해선 USTR의 공식적인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미국 정부는 지난 10여년동안 강제노동을 통해 제품이 통용되는 것에 대해 제재 내지는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그 부분이 미국 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관심사항"이라고 밝혔다.

여분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준이었다"며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국익을 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올거예요, 더 원더풀한 인생이

NH **올**원더풀

지금까지 잘 달려온 당신, 앞으로의 시간이 더 원더풀해질 수 있기를!
금융 자산부터 건강 케어까지,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가치들을 한 곳에 담아
당신의 다음 인생을 더 믿음직스러운 혜택들,
더 빛나는 순간들로 채워드립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李 “골든타임 허비 안돼… 공공요금 동결·차등 지원 검토”

“밤새서라도 신속한 추경 편성” 당부
유류세 인하·농업인 유가보조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동 사태가 국내 영향을 주는데 대해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며 “추경(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치지 않게 재정 신속 투입도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빠르게 한다고 하는 게 한두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유가 상승 원자재 수급 등 여파로 민생 경제, 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부의 분배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게 양극화,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불안까지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원 방식이 다양하다. 직접지원, 간접지원, 조세 지원 방법도 있고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추

세적으로 양극화·불평등은 심화되는데 똑같이 쳐우하면 사실은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재정 지출 방법도 있는데 (양극화)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려면 직접 지원 방향으로 바꾸고,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계층,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효율적이긴 한데 이걸 보고 ‘퍼준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꼭 필요한 데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 화폐로 지원해 소상공인, 지역상권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점을 고려해 정책 판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 농업인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공공요금을 동결해 지갑이 얇아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어 “나프타 같은 핵심 원자재 물량 확보도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식용유·라면 등 생산업체들이 일부 제품 가격을 내달 출고분부터 인하한다는 소식에 대해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사실 기업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고 하고, 또 서민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의 양보를 한다.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민주 국정조사 추진에 국힘 특검 ‘맞대응’

與,尹정권 조작기소 의혹 본회의에
野, ‘이재명 공소취소 거래설’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가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을 두고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141인으로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조작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는 대장동·위례·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쌍방을 대북송금·문재인 정부

통계조작·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등을 7개 핵심 사건으로 꼽은 바 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국민의힘 등과 국정조사 실시 및 계획서 본회의 처리 시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를 마친 뒤 국조특위도 구성해, 이르면 이달 말쯤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내부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이 돌고 있다는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 내용과 관련해 특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뒷거래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당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특검법안을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혹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권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 맞바꾼 국정농단”이라며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을 향해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공소 취소 외압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분명히 탄핵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주도로 보고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식’ 국조가 된다면 국민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연히 우리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리스크 대응 상황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 중동상황 여파 에너지 대책 협의

“원전 가동 조기 복구”

당정이 12일 중동 상황 여파 속에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협의에 나섰다. 정부는 원전 조기 재가동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원전 가동을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변동 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이 크다”며 “국내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기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스 수급은 큰 문제가 없지만 유가에 가스 가격이 연동돼 있어 가격은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전기료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가 문제 근본 대책은 화석연료 시대를 가급적 빨리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와 시대로 전환하는 일”이

라며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누적 100GW까지 늘리는 것인데 가급적 조기에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압송전망 건설 과정에서의 갈등 해결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가격 체계 개편 ▲에너지 기본소득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 대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른 국내 전력수급 리스크를 점검했다”며 “전력수급 차질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정부에 철저한 비상대응 태세를 주문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당부했다”며 ▲에너지 대안반 가동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 등 정부 추진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당정은 이번 에너지 안보 위기를 계기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미통상 불확실성 완화 가능성 높아져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25% 재인상 카드를 철회해 한미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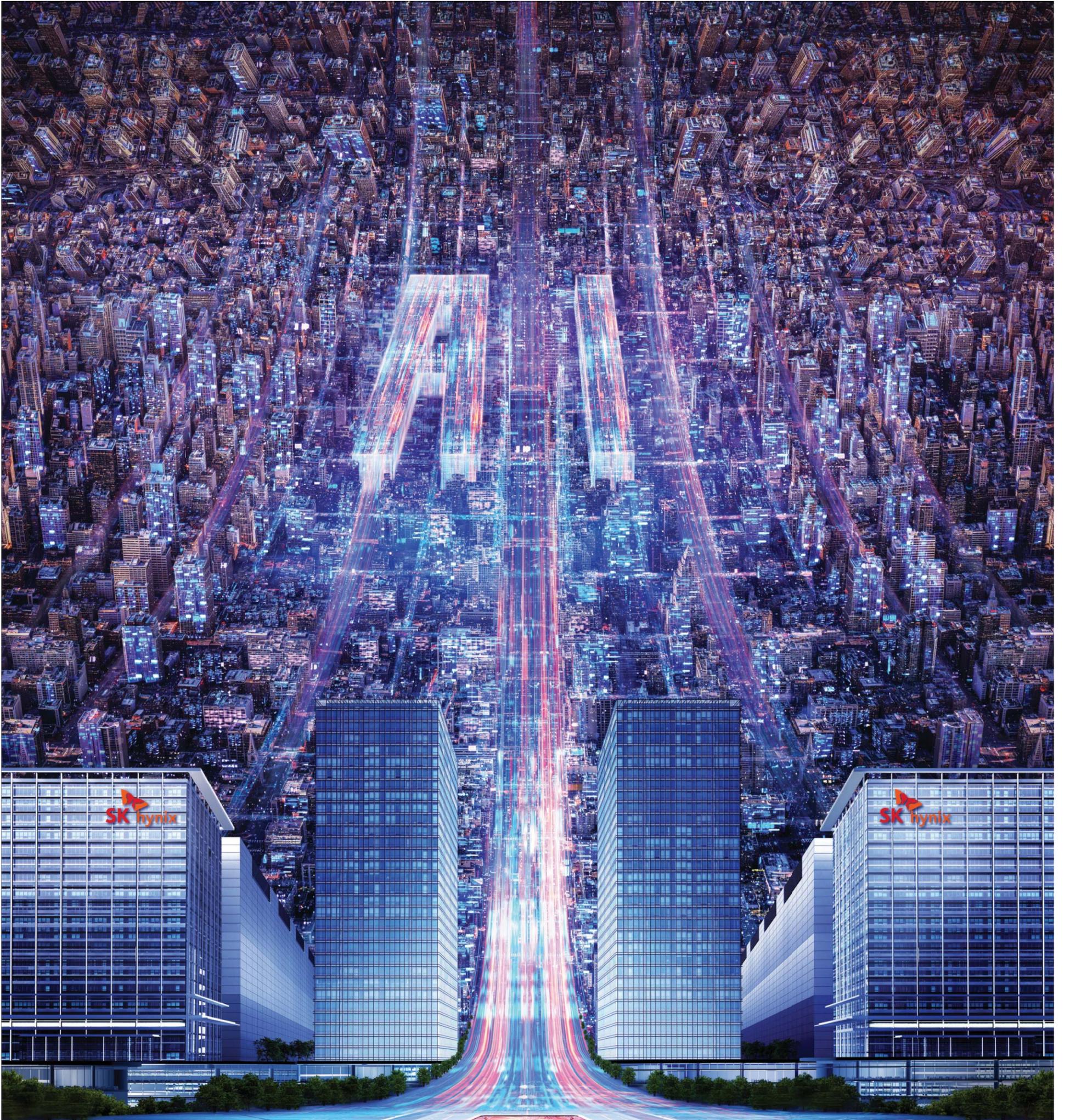
3500억달러(약 518조385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대미투자 후보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할 공사 산하의 운영위원회 설치도 규정했다.

특별법 처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우리나라 국회의 특별법 미처리를 문제 삼으며 관세를 25%까지 재인상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앞서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까지 낮췄는데, 이를 올리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특위 활동 마감 시한인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특별법을 넘겼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 통과에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예진 기자



시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철거 등 사업 속도… 7·9호선 가까운 6구역 선호도 높아”

부동산 현장 르포

노량진 재개발구역 가보니

‘고시촌’으로 유명한 서울 노량진동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오는 4월 노량진뉴타운 아파트 첫 일반분양이 시작돼 부동산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찾아가는 노량진동은 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철거가 진행되거나 공사가 한창이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오래된 주택과 고시원 건물이 남아 있지만 곳곳에 재개발 안내문과 공사 가림막이 눈에 띄었다.

노량진뉴타운은 동작구 노량진·대방동 일대 약 74만㎡ 부지에 총 903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지난 2003년 서울시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뒤 2009~2010년 8개 사업장 모두 정비구역으로 결정됐지만 그동안 공사비 상승과 조합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최근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르면 다음 달 노량진6구역을 시작으로 연내 약 3000가구가 공급된다. 가장 속도가 느린 노량진1구역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다. 4구역 역시 하반기 공사에 들어간다. 사업이 완료되면 총 9000가구 규모의 서남권 대표 아파트 단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임박

첫 일반분양 단지는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노량진6구역 ‘라클라체자이드프린’이다. 단지는 지하4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주택가 골목 모습. 과거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몰렸던 ‘고시촌’이 뉴타운 개발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노량진·대방동 일대 총 9032가구 6구역 시작으로 연내 3000가구 공급 중동전쟁 영향 분위기 다소 가라앉아 내달 분양 본격화, 문의 늘어날 것 여의도·용산 낀 위치 가장 큰 장점 ‘한강 조망’ 가능은 하지만 제한적

층~지상 28층, 14개 동, 총 149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106㎡ 36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을 겹쳐서 이용할 수 있어 입지가 뛰어나다. 입주는 오는 2028년 11월 예정이다.

2구역과 8구역도 연내 분양이 예정돼 있다. 2구역은 최고 39층에서 45층으로 계획이 변경됐으며 SK에코플랜트가 ‘드라인아르티아’를 짓는다. DL이앤씨의 ‘아크로리버스카이’가 들어서는 8구역은 철거가 마무리 단계다. 일반분양은 2구역 299가구, 8구역이 289가구로

규모다.

◆ 청약 분위기는 아직 잠잠

분양 일정이 나왔지만 청약 문의는 아직 주춤한 모습이다. 뉴타운 인근 Z부동산공인중개업소대표는 “분양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문의가 많았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며 “중동전쟁 영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달 분양이 본격화되면 문의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며 “이미 지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은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개발 속도가 빠른 노량진 6구역과 8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6구역과 8구역 분양 시기가 비슷해 두 곳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6구역은 장승배기 쪽, 8구역은 여의도와 더 가깝다는 점에서 각각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6구역은 7호선과 9호선을 이용하기가 더 좋은 입지여서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현장에서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노량진뉴타운은 약 9000가구 규모의 대형 재개발 사업으로 다음 달 6구역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업계에서는 이 일대 평균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 약 24억~25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 가능 금액이 약 4억원에 그쳐 일반 수요자가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큰 편이다. 전용 59㎡ 역시 15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실제 청약 문의는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량진뉴타운 사업은 구역별로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3구역은 빠르면 올 가을 이주가 시작될 수 있고 1구역이 올 봄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내년 봄쯤 이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 ‘고시촌’→‘고급 아파트 타운’

노량진뉴타운 개발은 동작구의 주거 환경을 재편하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노량진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몰려드는 고시촌으로 유명하다. 1980년대에 학원가와 고시원이 밀집해 저렴한 물가와 좁은 주거공간이 특징이었고, 노량진 수산시장과 컵밥거리 등

서민 상권 이미지도 강했다. 하지만 사업고시 폐지와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온라인 강의 중심으로 공부 방법이 바뀌면서 수험생 유입이 크게 줄었다. 현장에서 ‘고시촌’은 옛말이라는 반응이다.

학원들이 통폐합되면서 노량진 학원가 규모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와 강남 등 다른 학원 밀집 지역으로 이전해 대형 학원가 분위기도 열어진 것이다.

◆ 서울 한복판에 하이엔드 브랜드

노량진 뉴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위치다. 여의도와 용산을 끼고 있고 강남 접근성도 좋은 데다 트리플 역세권과 서부선 교통 호재도 기대된다. 7호선 장승배기역에 새철역과 서울대입구역에 있는 서부선 경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다.

한강 조망은 가능하지만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량진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한강뷰가 쉽게 나오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3구역이나 4구역 일부 고층에서 가능성이 있고 1구역도 높은 층에서 보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뉴타운 개발은 인근 지역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공인중개업소관계자는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되면 주변 상도동이나 동작구 일대 주거환경도 함께 개선될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이 집을 팔아도 대부분 동작구 인근에서 다시 집을 찾기 때문에 집값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2월 외국인 주식자금 135억 달러 유출 ‘역대 최대’

한은,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증권투자자금 77.6억 달러 순유출 자금이탈·중동분쟁에 환율도 상승

중동지역 분쟁 확대와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확산 영향으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대거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77억6000만달러 순유출로 전환했고, 특히 주식자금은 135억달러 빠져나가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순유출을 기록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

금은 77억6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난 1월 23억9000만달러 순유입에서 한 달 만에 순유출로 돌아섰다. 2008년 7월 이후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순유출 규모다.

특히 주식자금 유출이 두드러졌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2월 중 135억달러 순유출돼 2020년 3월의 110억4000만달러를 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순유출을 나타냈다. 한은은 AI 투자 관련 경계감이 커진 데다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도가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채권자금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저가 매수세와 민간부문 중심의 견조한 투자수요에 힘입어 57억

4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외국인 자금 이탈과 중동지역 분쟁 확대는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원·달러 환율은 1월 말 1439.5원에서 3월 10일 1469.2원으로 올라 원화 가치가 2.0% 하락했다. 한은은 미 달러화 및 엔화 움직임에 연동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달러화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와 중동지역 분쟁 확대가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환율 변동성도 커졌다. 2월 중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일평균 변동폭은 8.4원으로 1월 6.6원보다 확대됐고, 변동률도 0.45%에서 0.58%로 높아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2월 말 이후

중동 분쟁 확대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주요국 국제금리가 다시 상승 전환하고, 미 달러화도 강세 폭을 키웠다.

다만 외화조달 사정까지 급격히 악화되진 않았다. 2월 중 단기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11bp(1bp=0.01%포인트)로 전월과 같았고, 외평채 신용부드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1bp에서 22bp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중장기 대외차입 가산금리가 42bp에서 46bp로 다소 오르기 했지만, 한은은 전체적으로 국내은행의 대외차입 여건이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SC그룹 고위 경영진, 임직원과 소통

SC제일은행 본사서 비즈니스 지원

SC제일은행은 모기업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고위 경영진이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사를 방문해 그룹 경영진 회의를 개최하고 임직원 소통 및 비즈니스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빌 윈터스 SC그룹 회장을 포함한 SC그룹 경영진은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주요 시장을 순회하면서 경영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현지의 고객 및 임직원들과 소통을 진행한다. 앞서 SC그룹 경영진은 지난 2023년에도 SC그룹 이사회를 서울 SC제일은행 본사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방한한 SC그룹 경영진은 그룹 경영진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한국 시장의 주요 고객 방문 ▲SC제일은행 차세대 리더들과의 만남 ▲압구정 프라이빗 뱅킹 센터 방문 등 SC제일은행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임직원들과 소통하며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다양한 대내외 일정을 소화했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전세계 SC그룹 임직원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방식의 ‘SC그룹 글로벌 타운홀’이 SC제일은행 본사 강당에서 진행됐다. 글로

/안승진 기자 asi1231@

롯데카드 정상호 대표이사 선임

롯데카드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정상호 대표이사(사진)를 선임했다.



롯데카드는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상호 대표이사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의결하고, 연이어 진행된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했다. 임기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2028년 3월 29일까지다.

정상호 대표이사는 1963년생으로 현대카드 SME사업실장, 삼성카드 전략 영업본부장을 거쳐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롯데카드에서 카드사업본부장과 영업본부장을 역임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정 대표이사는 주요 카드사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전략, 마케팅, 영업 등 카드 비즈니스 전반을 관통한 30년 경력의 카드 전문가”라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지불 결제 시장 속에서 조직의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사이버 침해 사고 수습과 수익성 회복 등 마중만 당면 과제 해결 및 대내외 신뢰 회복을 이끌어 갈 책임자”라고 덧붙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효성중, K-전력기기 수출 선봉... 조현준 회장 '현장경영' 주효

美·유럽 등 글로벌 수주 행진
호주서 1425억 ESS EPC 계약
조 회장, 현지 네트워크 뒷받침



(왼쪽 네번째)효성 조현준 회장이 지난 1월 호주 경제인연합회(BCA) 브랜 블랙 CEO 등 대표단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이 전세계를 직접 발로 뛰며 K-전력기기 수출의 선봉에 섰다.

효성중공업은 '탕캄 BESS Pty Ltd.'와 1425억원 규모의 ESS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호주 퀸즐랜드주 탕캄 지역에 100MW/200MWh급 배터리 기반 ESS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7년 말 상업 운전 개시를 목표로 한다.

효성중공업은 지난달에도 미국에서 창사 이래 최대인 7870억원 규모 전력기기 공급계약을, 핀란드에서는 290억원 규모 초고압변압기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엔 호주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글로벌 전역에서 K-전

력기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번 계약은 효성중공업이 호주 시장에 ESS를 공급하는 첫 사례로, 호주 정부의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ESS 확대 정책에 따라 추진됐다.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8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

너지는 발전량이 날씨에 크게 좌우되어 전력망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안정화 설비가 필수적이다.

효성중공업의 이번 ESS 구축은 이러한 호주 전력망 안정화에 직결되는 핵심 솔루션이다. ESS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잉여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시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실시간 주파수 조정을 통해 전력망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 효성중공업은 자체 배터리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터리 제어부터 전력기기 연동까지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 제어 기술을 선보인다. 효성중공업은 2024년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저명한 리서치 기관인 BNEF의 최우수 ESS 업체로도 등재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호주,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전역에서 전력기기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다. 이 같은 수주 행진은 전세계 시장을 직접 발로 뛰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동한 효성 조현준 회장의 '현장 경영'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호주 수주의 경우에도 조회장이 호주 주요 유틸리티사 경영진 및 에너지 정책 관련 정부 고위층들을 만나는 등

현지 인사들과 이어온 폭넓은 교류가 결정적 밑거름이 되었다. 조 회장은 지난해 미 워싱턴 D.C.를 방문해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주미 호주 대사) 등 정·재계 리더들과 만나 호주의 에너지 인프라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 지난 1월에는 호주 경제인연합회(BCA) 브랜 블랙 CEO 등 대표단과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효성 조현준 회장은 "앞으로의 전력산업 경쟁력은 전력망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에서 결정된다"며 "글로벌 전력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효성중공업의 HVDC(초고압직류송전) 역량을 비롯해 초고압변압기·차단기 등에서 쌓아온 높은 신뢰와 ESS, 스택콤 등 미래 핵심기술을 결합해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K-전력기기 위상을 높여 수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메모리 가격 천정부지... IT업계, 제조원가 압력 커져

스마트폰·노트북 등 주요 기기 영향
물류 비용도 경중... 가격 인상 줄이어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제품 전반에 가격 인상 압박이 계속 커지고 있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확대되면서 주요 IT 기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12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가격은 전 분기 대비 50% 이상 상승했다. 낸드플래시 가격은 같은 기간 90% 이상 급등하며 모바일 메모리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 원가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도매가

200달러 이하 보급형 스마트폰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6GB LPDDR4X와 128GB eMMC를 탑재한 모델을 기준으로 다른 부품 가격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1분기 총원가가 전 분기 대비 약 2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전체 원가에서 메모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한다.

프리미엄과 플래그십 스마트폰 비용 부담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공식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리즈' 또한 원가 압박 영향으로 전 모델 평균 가격이 직전 모델 대비 10만원 가량 인상됐다.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은 대용량 메모리 탑재와 함께 2나노 공정 기반 시스템온칩(SoC) 적용이 확대되면서 비용 부담이 이중으로 커지는 모습이다. 800

달러 이상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2분기까지 전체 원가가 약 100~150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원가 내 D램 비중은 23%, 18%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 전략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급형 모델의 예상 출하량을 줄이며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하고 일부 제품에서는 사양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노트북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PC용 D램 범용제품의 고정가격은 전월 대비 13.04% 오른 1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 북 6 프로'는 260만원부터 351만원까지 가격이 책정됐다. 지난해 176만원에서 시

작했던 가격과 대비하면 크게 오른 수준이다. '갤럭시 북6 울트라'는 432만원부터 493만원까지 가격이 책정됐다.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3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RTX50 시리즈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고성능 부품을 탑재한 영향도 있으니 D램 가격 폭등 인상이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LG전자가 올해 출시한 '그램 프로 AI 2026'도 31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사양 모델 대비 약 50만원 상승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에 더해 유가 상승과 물류 비용 증가까지 겹치면서 제조원가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환율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제품 가격 인상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토요타자동차, 하남 서비스센터 오픈

한국토요타자동차는 경기도 하남시에 렉서스·토요타 하남 전시장 및 종합 서비스센터를 신규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연면적 1만1570㎡(약 3500평) 규모로 차량 판매, 서비스, 부품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3S 콘셉트의 복합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토요타자동차

현대차그룹-화유리사이클 인니 EV 배터리 사업 맞선

지속가능한 배터리 공급망 마련 방침

현대차그룹은 12일 서울 양재사옥에서 화유리사이클과 '인도네시아 EV 배터리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정호근 현대차그룹 미래전략본부장 부사장, 바오 웨이 화유리사이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 소재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셀 합작공장인 'HLI 그린파워'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스크랩을 회수해 화유리사이클 현지 거점에서 블랙매스로 전처리한다. 향후 수명이 다한 배터리 재활용 등 EV 배터리 순환 경제 구축 전 단계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MOU는 배터리 수명 주기 전체를 포괄하는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배터리 공급망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접근성 개선 제품·솔루션 선보

CSUN AT 참가... 키오스크 등 소개

LG전자가 오는 13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애너하임에서 진행되는 접근성 콘퍼런스 'CSUN AT 2026(씨선 에이티 2026)'에 참가해 누구나 편리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단독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장애인, 시니어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품과 서비스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전시에는 점자기기 전문기업 닷(Dot)과 공동 개발한 키오스크 신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장애 고객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패널, 수어 안내, 스크린리더 등 다양한 접근성 기술을 통합 적용한 제품이다. 이외에 ▲성별, 나이, 장애 유무와 상



LG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접근성 콘퍼런스인 'CSUN AT 2026'에 참가해 고객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대거 선보였다. 사진은 전시장을 찾은 고객이 수어안내가 적용된 키오스크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LG전자

관없이 가전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돕는 'LG 콤포트 키트' 액세서리 ▲LG 올레드 TV에 탑재된 사·청각 지원 기능인 '음성 메뉴 읽어주기', '수어 메뉴 읽기', '보청기·스피커 동시듣기' 등도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차현정 기자

LS그룹, 지난해 매출·영업이익 '신기록'

매출 45.7조, 영업이익 1.5조

LS그룹이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지난 2003년 그룹 출범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LS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LS전선, LS일렉트릭, LSMnM 등의 사업 호조로 지난해(12개사 합계·내부회계 기준) 매출 45조7223억원, 영업이익 1조4884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2024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1%, 23.1% 증가한 수치로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이다.

실적 개선에는 LS전선과 LS일렉트릭의 글로벌 사업 호조가 크게 작용했다. 두 회사는 글로벌 전력망과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초고압·해저케이블, 초고압 변압기, 배전반, 부스덕트 등 송전·변전·배전을 아우르는 토

털 솔루션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수주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두 회사는 지난해 기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12조원을 웃도는 수주잔고를 확보하며 중장기 성장 동력을 이어가고 있다.

LSMnM은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와 함께 황산 및 귀금속 사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LS엠트론·E1·INVENI 등 주요 계열사들도 북미 사출기 시장 안착, LPG 트레이딩 실적 개선, 투자 전문성 강화에 따른 투자수의 확대 등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됐다.

한편 LS그룹은 향후 5년간 국내 7조 원, 해외 5조 원 등 총 12조원을 투자해 그룹 비전 2030인 자산 50조원 달성과 미래 지향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은 기자 dhalehale@

포스코퓨처엠 “소재·공정 혁신으로 배터리 가격 경쟁력 높인다”

인터배터리

배터리 가격 100달러 이하 달성 관건 LMR로 가격·에너지밀도 동시 확보 양극재 공정 혁신으로 생산효율 제고 인조흑연 연속 공정으로 원가 절감 전고체 배터리, 로봇·방산부터 공략

배터리 가격을 킬로와트시(kWh)당 100달러 이하로 낮추기 위한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소재 혁신과 공정 기술 개선이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리튬인산철(LFP)과 하이니켈 중심으로 형성된 배터리 시장 구조 속에서 차세대 소재 개발과 공정 혁신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홍영준 포스코퓨처엠 기술연구소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6 더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현재 배터리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배터리 가격을 킬로와트시(kWh)당 100달러 이하로 낮추는 것”이라며 “지난 15여년 동안 가격이 빠르게 하락했지만 LFP 배터리는 이미 100달러 이하에 도달한 반면 니켈·코발트·망간(NCM) 기반 삼원계 배터리는 여전히 그 수준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가격 경쟁력과 함께 원료 공



홍영준 포스코퓨처엠 기술연구소장이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6’ 더배터리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급망 구조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현재 배터리 소재 공급망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집중돼 있어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는 원료 확보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소재와 공정 혁신을 통해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홍소장은 “LFP는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리튬망간리치(LMR)과 같은 새로운 소재 접근을 통해 에너지 밀도와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극재 공정 기술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연구소장은 “현재 대부분의 양극재는 전용 열처리 장비인 RH K(Roller Hearth Kiln·롤러 허스 킬른)

소성로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설비 길이가 약 75미터에 이르는 구조라 생산성과 공정 효율에 한계가 있다”며 “차세대 소성 공정을 개발해 생산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공정 혁신을 통해 양극재 생산 공정에서 재하량(장입량)을 2배 이상 올리고 약 24%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조흑연 공정 혁신도 진행되고 있다. 그는 “기존 인조흑연 생산 공정은 약 3000도에 가까운 온도에서 장시간 열처리가 필요한 구조”라며 “촉매 기술을 활용한 연속식 공정을 통해 약 12시간 만에 인조흑연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생

산 비용을 50% 이상 줄이고 에너지 효율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는 포스코퓨처엠이 지분을 투자한 미국 전고체 배터리 기업 팩토리얼에너지의 시유 황(Siyu Huang) 최고경영자(CEO)도 발표자로 나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전략과 상용화 방향을 소개했다.

시유 황 CEO는 “팩토리얼은 고성능 배터리를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초기 설계는 기존 배터리 제조 공정과 호환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개발하는 전고체 기술은 리튬이온 대비 에너지 밀도가 최대 80% 높아 훨씬 가볍고 작은 배터리를 만들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고체 배터리의 초기 시장으로 로봇과 방위 산업을 제시했다. 시유 황 CEO는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등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이 배터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고성능이 요구되는 특수 시장에서 시작해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 시장은 기존 자동차 시장보다 빠른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이스타항공

지난해 탑승률 90.1%

국내 항공사 중 최고치

탄력적 노선운영·신규 항공기 효과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90%를 웃도는 탑승률을 기록하며 국내 항공사 가운데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총 3만3600편을 운항해 632만9790석을 공급했고, 이 가운데 570만5493명이 탑승해 탑승률 90.1%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기준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체 평균 탑승률 84.8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스타항공은 합리적인 항공권 운임, 탄력적인 노선 운영, 신규 항공기의 쾌적한 기내 환경, 편리한 공항 및 기내 서비스 등이 높은 탑승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보유 항공기 20대 중 절반인 10대를 차세대 항공기인 B737-8기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한화시스템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연구개발·인공지능 등 분야 모집

한화시스템은 미래 방산 및 첨단기술 시장을 선도할 인재 확보를 위해 이달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정기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는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정보기술(IT) 시스템 개발·운영, 경영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 자릿수 규모의 인원을 모집한다.

채용 부문은 방산과 정보통신기술(ICT)로 나뉜다. 방산 부문은 이달 26일까지, ICT 부문은 25일까지 한화그룹 채용 홈페이지 ‘한화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유혜은 기자

대한전선

베트남 초고압 공장 착공

400kV급 케이블공장 내년 가동

대한전선은 베트남 생산법인 대한비나가 현지 남부 동나이성에 400kV급 초고압(EHV) 케이블 신공장을 착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장은 대한전선이 해외에서 처음 확보하는 초고압 케이블 생산기지로,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에 대응하고 해외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신공장은 대한비나 기존 공장이 위치한 동나이성 퉁탄산업단지 내 약 5만 6200㎡(약 1만7000평) 부지에 조성되며,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유혜은 기자

LCC, 국제선 SAF 도입 확대... 의무화 앞두고 부담 가중

내년부터 국제선 SAF 혼합 의무화 주요 LCC, 日·동남아 노선 적용 확대 높은 연료비에 수익성 악화 우려

정부의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를 앞두고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국제선 노선을 중심으로 SAF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SAF가 기존 항공유보다 최대 5배 비싼 데다 원료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의무화 시행 이후 LCC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 9일부터 인천~싱가포르 노선 운항편에 SAF 혼합연료(1%)를 주 3회 급유하며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2024년 에쓰오일과 SAF 공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천



티웨이항공 항공기. /티웨이항공

~구마모토 노선에서 SAF 상용 운항을 시작했다. 이후 로마·바르셀로나·파리·프랑크푸르트·자그레브 등 유럽 노선에서도 현지 공항 급유 방식으로 SAF 사용을 확대했다.

진에어는 에쓰오일과 GS칼텍스에서 공급받은 SAF를 인천~기타큐슈 노선에서 혼합 급유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인천~후쿠오카 노선에 SAF를 적용한 바 있으며 현재는 해당 노선과 관련한 신규 계약을 검토 중이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3월부터 SAF 상용 운항을 시작해 부산발 국제선에 적용하고 있으며, 파라타항공도 인천~나리타 노선에서 항공유 사용량의 약 1%를 SAF로 혼합해 공급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의 SAF 도입 확대는 정부의 혼합 의무화 로드맵과 맞물려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로드맵을 발표하고 오는 2027년부터 국제선 항공유에 SAF 1% 혼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혼합 비율은 2030년 3~5%, 2035년 7~1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문제는 비용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SAF 가격이 일반 제트연료

보다 약 3~4배 수준이며 일부 시장에서는 최대 5배까지 높게 형성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아직 제도 시행 전이지만 향후 연료비 상승과 규제 준수 부담이 현실화하면 재무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LCC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높은 가격 구조의 배경에는 원료 공급 제약도 있다. SAF의 핵심 원료인 폐식용유(UCO)는 글로벌 시장에서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폐식용유 수출량은 9만5311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0%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해외 수요가 국내 물량을 흡수하면서 향후 원료를 더 비싼 가격에 들여와야 하는 역수입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LS전선, 美 희토류 자석공장 검토... 공급망 구축 속도

버지니아 신규 투자 후보지로 선정

LS전선이 미국 내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설립을 검토하며 원료 확보부터 급속 생산, 자석 제조로 이어지는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LS전선은 미국 버지니아주 체사피크(Chesapeake)시를 신규 투자 후보지로 선정하고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버지니아주 정부와도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력한 후보지는 LS전선이 건설 중인 해저케이블 공장 인근 부지로 알려졌다. 생산 거점을 인접하게 구축해 물류 효율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전기차(EV)와 풍력발전기, 로봇, 전자기,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그러나 글로벌 생산의 약 85%가 중국에 집중돼 있어 미국

과 유럽을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LS전선은 희토류 영구자석 사업을 위해 원료 확보부터 급속화, 자석 생산에 이르는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자회사LS에코에너지는 지난해 12월 17일 베트남에서 희토류 급속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약 285억원 규모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베트남 호찌민 생산법인(LSCV)에 희토류 급속화 설비를 구축해 글로벌 광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희토류 산화물을 정련하고 희토류 급속을 생산할 계획이다.

희토류 급속은 로봇과 풍력터빈,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모터용 영구자석의 핵심 원료다. 특히 급속화 공정은 기술적 난도가 높아 중국을 제외하면 일본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상업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글로벌 광산업체의 희토류 산화물 확보 ▲LS에코에너지의 베트남 희토류 급속 생산 ▲LS전선의 미국 영구자석 생산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관희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리니지 의존 벗고 모바일 캐주얼로 2030년 매출 5조 목표”

엔씨소프트 경영전략 간담회

기존 IP 안정적 현금흐름 담당
신규 IP는 자체개발·퍼블리싱
지난해 모바일 캐주얼 센터 신설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의존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을 공식 선언했다. 모바일 캐주얼 게임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2030년 매출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엔씨소프트는 12일 경기 성남 판교R&D센터에서 ‘2026 엔씨 경영전략 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박병무 공동대표와 홍원준 CFO, 아널 체만 모바일캐주얼센터장이 참석해 향후 사업 방향과 실행 전략을 설명했다.

박병무 엔씨소프트는 공동대표는 “게임 하나의 성공 여부에 회사 실적이 좌우되는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며 “2030년 매출 5조원과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년 전만 해도 회사 실적은 특정 게임의 성공과 실패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며 “지난 2년은 체질 개선과 개발 체계 정비를 통해 턴어라운드 기반을 마



아널 체만 모바일캐주얼센터장(영상 이미지), 박병무 공동대표, 홍원준 CFO(왼쪽부터)가 12일 경기 성남 판교R&D센터에서 열린 ‘2026 엔씨 경영전략 간담회’에서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련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엔씨는 이를 위해 ▲레거시 IP 고도화 ▲신규 IP 확보 ▲모바일 캐주얼 사업 확대를 3대 핵심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먼저 기존 IP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담당한다.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 앤소울’, ‘길드워2’ 등 주요 IP의 라이브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서비스 지역 확대와 스핀오프 신작 개발을 통해 연간 약 1

조5000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IP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 개발과 퍼블리싱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실행한다. MMORPG뿐 아니라 슈팅, 서브컬처, 액션 RPG 등 다양한 장르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도 강화한다.

현재 자체 개발 10종 이상과 퍼블리싱 6종 이상의 신작 라인업을 확보한 상태다. 북미 시장에서는 택티컬 FPS 게임 ‘디펙트’의 글로벌 퍼블리싱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략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모바일 캐주얼 게임 시장 진출이다.

엔씨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캐주얼 장르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지만 국내 대형 게임사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지난해 모바일 캐주얼 센터를 신설했다.

아널 체만 모바일캐주얼센터장은 “캐주얼 게임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핵심이며 성공 가능성이 검증된 프로젝트만 빠르게 확장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며 “엔씨는 이미 데이터 기반 모바일 캐주얼 사업을 실행할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 개발 네트워크 구축도 진행 중이다. 베트남 리후후, 슬로베니아 무빙아이, 국내 스프링컴즈 등 개발 스튜디오를 확보했다. 특히 최근엔 독일 모바일 플랫폼 기업 저스트플레이를 인수했다. 약 2억200만달러를 투자해 지분 70%를 확보한 것. 사용자 보상 기반 플랫폼을 통해 게임 이용자 유지율을 높이고 광고 효율을 개선하는 구조로 모바일 캐주얼 사업의 핵심 엔진 역할을 맡게 된다.

향후 모든 모바일 캐주얼 스튜디오는 엔씨의 중앙 데이터 플랫폼과 연결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 확보(UA)와 광고 효율 분석(ROAS), 라이브 운영(LiveOps), 콘텐츠 최적화, AI 기능 등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체만 센터장은 “캐주얼 게임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핵심”이라며 “지표가 좋으면 확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엔씨는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 한국과 대만, 일본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 북미와 유럽, 동남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중남미와 중동, 인도 등 신규 시장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AI 기술 활용도 강화한다. 엔씨는 외부 AI API와 내부 AI 조직을 활용해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제작 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병무 대표는 행사 말미에 “오늘 발표한 전략은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로 봐달라”며 “올해 약속한 목표부터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tina@metroseoul.co.kr



metro

KT, 기업 안정적 인터넷 사용 지원한다

제로트러스트 보안 적용 서비스 ‘플렉스라인 ZTNA’ 선포

KT는 제로트러스트(내·외부 구분 없이 모든 접속요청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것) 보안을 적용한 기업인터넷 서비스 ‘플렉스라인 ZTNA(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플렉스라인은 회선과 인터넷프로토콜 IP, 장비, 운용 관제 등을 지원하는 기업인터넷 서비스다. 소프트웨어 기반 광역 네트워크(SD WAN) 기술을 적용해 기업의 업무환경과 네트워크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대역폭을 유연하게 조정한다.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와 원하는 용량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으며 방화벽과 가상사설망(VPN) 등 보안 기능도 제



KT가 제로트러스트를 적용한 기업인터넷 ‘플렉스라인 ZTNA’를 출시했다. KT 직원들이 ‘플렉스라인 ZTNA’를 소개하고 있다. /KT

공한다.

이번에 출시한 플렉스라인 ZTNA는 기존 플렉스라인 서비스에 제로트러스트 보안 개념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VPN 환경이 한 번 로그인하면 이후 접속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방식이었다면 플렉스라인 ZTNA는 사용자와

단말,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접속시점마다 권한을 검증한다. 인공지능 기반 탐지 기술을 활용해 접근 권한을 확인하고 안티바이러스 설치 여부나 보안 패치 상태 등 단말 보안 수준에 따라 접근을 제어한다.

KT는 기업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해 양자암호 기술을 적용한 장비 라인업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금융업 등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기업도 안정적으로 기업용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클린존과 AI 메일 보안 등 KT 보안 솔루션도 함께 제공한다.

플렉스라인은 올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서 기업용 인터넷 부문을 수상했다. KT는 서비스 기술력과 기업 고객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넥서스-머소,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확대

크로스 생태계 내 AI 할부결제 연동

넥서스는 지난 11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자산 금융 인프라 기업 머소와 ‘크로스(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생태계 확장과 결제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넥서스의 온체인 게임 플랫폼과 머소의 AI 기반 할부 결제 기술을 결합하기 위해 추진했다. 양사는 기술 연동을 넘어 공동 게임 소싱과 사업 확장을 포함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사는 우선 크로스 생태계 내 게임에 머소의 AI 기반 무이자 할부 결제 기능을 연동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고가 게임 아이템이나 한정판 NFT, 프리미

엄 패키지 등을 할부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넥서스는 웹3 게임 체인 기술과 머소의 결제 솔루션을 결합한 패키지를 게임 스튜디오에 제안해 크로스 생태계 온보딩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머소의 AI 리스크 평가 시스템은 디지털 자산 가치를 실시간 분석해 결제 위험을 관리한다. 이 기술은 넥서스의 크로스페이와 크로스허브 등 인프라와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머소는 디지털 자산과 웹3 게임을 위한 AI 기반 금융 인프라 기업이다. 2023년 설립 이후 디지털 자산 신용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회사 측은 결제 옵션 도입 이후 결제 전환율이 최대 40% 증가하고 평균 거래 규모가 60% 이상 확대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LG CNS, 환경·특성 반영 기업용 AI 도입

팔란티어와 전략적 파트너십

LG CNS가 미국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협력해 인공지능 전환(AI) 사업 확대에 나선다.

LG CNS는 지난 11일 미국 현지에서 열린 팔란티어 AIPCon 행사에 앞서 팔란티어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현신군 LG CNS 최고경영자와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팔란티어는 기업 내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제해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파운드리와 통합 데이터 환경에 생성형 AI를 결합해 기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P(인공지능플랫폼)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LG CNS는 이번 협력을 통해 팔란티어의 파운드리와 AIP를 국내 기업 환경에 맞춰 제공할 계획이다. 고객사의 데이터 환경과 산업 특성을 반영해 기업용 AI 플랫폼 도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LG CNS는 팔란티어 사업 전담 조직인 FDE 전담배치 엔지니어링 조직을 신설한다. 이 조직은 팔란티어와 협력해 제조 에너지 전자 물류 등 다양



LG CNS CEO 현신군 사장(왼쪽)과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LG CNS

한 산업 분야에서 AI 적용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한다.

LG CNS는 LG그룹 계열사를 중심으로 사업 확장에도 나선다. 회사는 이미 LG 계열사 한 곳의 품질 관리 영역에서 파운드리와 AIP 적용을 위한 개념검증을 완료했다. /최빛나 기자

네이버페이, NFT 기반 커뮤니티 기능 추가

‘Npay 월렛 커뮤니티’ 선포 오픈형 ‘채널’, 폐쇄형 ‘인증방’

네이버페이는 비수탁형 디지털 자산 지급 서비스 ‘네이버페이(Npay) 월렛’에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한 ‘Npay 월렛 커뮤니티’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Npay 월렛은 디지털 아트 형태의 NFT를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지급 서비스다. 아트 NFT뿐 아니라 티켓과 인증서 등 다양한 유형의 NFT를 보관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한 커뮤니티 서비스는 NFT를 기반으로 사용자 간 교류 기능도 제공한다.

커뮤니티는 오픈형 ‘채널’과 폐쇄형 ‘티켓 인증방’으로 구성했다. 채널에서는 제주도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와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 게임 방송 등 특정 행사나 주제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보유한 아트 NFT를 인증해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

티켓 인증방은 특정 행사 티켓이나 관련 NFT 보유자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다. KPGA 등 스포츠 이벤트 관련 NFT 보유 이용자만 입장해 소통할 수 있다. 동일한 공연이나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빛나 기자

중동 리스크에 흔들린 삼성 주가... 증권가 “저가 매수 기회”

美的 이란 공습 이후 13.21% 하락
올해 1분기 영업이익 40조 전망
“메모리 반도체 업황 여전히 강해”



삼성전자 서초사옥.

반도체 호황을 타고 22만원(증가 기준) 폭전에 뒤틀린 삼성전자 주가가 중동 정세 불안에 흔들리고 있다. 2월 28일(현지 시간)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패닉셀을 겪은 후 12일까지 삼성전자 주가는 13.21% 하락했다. 12일에는 ‘18만 전자’ (18만7900원)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저가 매수하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 아울러 전쟁상황이 삼성전자의 매력도와 배당 수익률을 유의미하게 높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12일 김동원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에 관한 보고서에서 “현재 D램과 낸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공급 확대는 내년까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돼 메모리 가격 상승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목표주가를 24만원에서 32만원으로 올렸다.

그는 “HBM3E(5세대 고대역폭메모

리) 가격을 넘어선 범용 D램 가격 상승은 큰 폭의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되고, 엔비디아향 프리미엄 HBM4(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출하 본격화 역시 실적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추론 AI 성능의 급격한 향상과 함께 2030년 AGI(범용인공지능)를 대비한 피지컬 AI 상용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추론 AI와 피지컬 AI의 확산은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수요 확대에 이어질 것이며, 이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은 2030년까지 목표로 한 5년 장기공급계약(LTA) 논의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삼성전자는 본격적인 실적

사이클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0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배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특히 1분기 메모리(D램, 낸드) 부문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11배 증가한 38조원으로 예상된다”며 “1개 분기 실적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메모리 영업이익(32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도 기존 170조460억원에서 220조2050억원으로 29.5% 상향했으며, 내년 영업의 추정치도 301조8470억원으로 직전 대비 57.8% 상향 조정했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중동지역의 종전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메모리 업황의 선형 지표는 여전히 견조하다”며 삼성전자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27만5000원을 유지했다.

미래에셋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D램 시장에서 현물가격은 기업 간 거래 기준인 계약가격보다 훨씬 높게 형성돼 있다. 신형 DDR5의 경우 290%, 구형

DDR4는 130%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DDR5 현물 가격은 0.5% 더 올랐다. DDR4 가격은 3.1%만 떨어졌다. 불안정한 대외 환경에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거나 하락이 제한적인 것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커졌다. 주가는 급락한 반면 실적 추정치는 유지됐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해 “성장성과 수익성은 차치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낮은 배수다. 최소한 시장 하락을 주도할 만큼의 부담되는 배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배당수익률도 5% 수준으로 높아졌다. 올해는 삼성전자의 3개년 주주환원 결산의 해다. 잉여현금흐름 60조 원 이상에 대해 특별주주환원이 가능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요건인 25% 배당 성향을 가정할 경우, 올해 4분기 DPS(주당배당금)는 8110원, 9월 증가 기준 예상 배당 수익률은 4.7%(우선주 6.7%)에 이른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다음주 ‘주총 슈퍼워크’... LG엔솔 등 총출동

상장사 2727곳 중 211곳 몰려
20일 하루에만 110개사 열려

국내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음 주부터 본격 막을 올린다. 3월 초까지만 해도 비교적 한산했던 일정이 셋째 주 들어 급격히 몰리면서,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가 한꺼번에 주총에 나서는 ‘슈퍼워크’가 펼쳐질 전망이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727개사 가운데 3월 셋째 주(16~22일)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회사는 모두 211개사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02개사, 코스닥시장 107개사, 코넥스시장 2개사다.

올해 주총 시즌은 3월 첫째 주 코스닥 상장사 현대에이디엠바이오 1개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둘째 주인 9~15일

에는 유가증권시장 7개사, 코스닥시장 2개사 등 총 9개사가 주총을 진행하며 예열 국면을 이어갔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일정이 한꺼번에 몰리며 본격적인 주총 레이스에 들어간다.

특히 18일과 20일에 주요 그룹 계열사가 대거 집중돼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18일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가 나란히 주총을 연다. 한화손해보험과 한화투자증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제일기획, 이노션 등도 이날 주총 일정을 잡았다.

19일에는 롯데정밀화학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하이마트 등 롯데 계열사를 비롯해 삼성카드, 삼성생명, LG디스플레이, 한화오션, 효성화학,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등 주요 상장사가 줄줄이 주총을 개최한다. 일진홀딩스와 일진전기, 일진하이솔루스 등 일진그룹 계열사도 같은 날 몰려 있다.

주총 일정이 가장 빡빡한 날은 20일이다. 이날 하루에만 110개사가 정기 주총을 열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아를 비롯해 유한양행, 삼성화재,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한미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주총에 나선다. 코스닥시장에서도 LS증권, 동국제약, 로보스타, 퓨런티어, 데이원컴퍼니 등 다수 상장사가 같은 날 주총을 연다.

이처럼 셋째 주에 일정이 집중되면서 올해 정기 주총 시즌의 분수령도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총 시즌에는 배당, 사내외이사 선임, 정관 변경, 보수한도 승인 등 주요 안건이 쏟아지는 만큼, 기업별 안건과 주주 반응에 따라 시장 관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허정윤 기자 zolkova@

순자산 ‘1조원 클럽’ 국내 ETF 80개 육박

2024년말 34개사 지난해에만 66개

증시 활황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올해 들어 순자산 1조원이 넘는 ETF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1000여개에 달하는 국내 ETF 가운데 순자산 ‘1조원 클럽’에 가입한 ETF는 78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66개에서 두 달여만에 12개 ETF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국내 우량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집중투자 하는 신한자산운용 ‘SOL AI반도체소부장 ETF(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이 지난 10일 1조원을 돌파했다. 연초 4600억원 수준이던 이 ETF의 순자산은 두 달여 만에 5000억원 이상 증가하며 1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종목에 투자하

는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Fn K-반도체 ETF’도 이미 지난 1월 27일 기준 순자산 1조원을 넘었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200ETF가 2006년 12월 22일 처음 순자산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4년 말까지 순자산 1조원 이상의 ETF는 34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중반부터 시작된 국내 주식 시장 급등으로 ETF에도 자금이 대량 유입되면서 ‘1조원 클럽’ ETF는 크게 늘었다. 2024년 말 34개였던 1조원 이상 ETF는 지난해에만 약 두 배가 늘어나면서 66개가 됐다.

순자산 5000억원이 넘는 ETF도 지난 10일 기준 147개로, 지난해 말 125개에서 22개가 증가했다. 2024년 12월(66개)과 비교하면 14개월 만에 곱절 이상이 늘어났다.

/신하은 기자

“6G에 투자”... 삼성운용 ‘글로벌배당펀드’

혁신 기술 보유 기업에 투자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Mobile World Congress)를 계기로 6세대 이동통신(6G)이 AI 시대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는 가운데, 삼성자산운용이 관련 상품을 새로 선보였다.

삼성자산운용은 6G로 대표되는 차세대 통신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삼성글로벌6G성장플러스배당 펀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글로벌6G성장플러스배당 펀드는 저궤 위성, 위성통신, 광통신, 통신반도체 등 6G 통신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한다. 성장기업 외에도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글로벌 통신사 등을 균형 있게 편입한다.

6G는 AI 시대를 현실화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인프라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의 한계를 넘어선 초고속, 초저지연, 초공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최근 막을 내린 MWC 2026에서는 통신 기술이 단순한 데이터 전달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연결하고 구동하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무선 통신망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려는 엔비디아 중심의 기업등



망 ‘AI-RAN 얼라이언스’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AI-RAN 얼라이언스는 기지국에 고성능 AI 연산 기능을 탑재해 통신 기지국에서 생성형 AI를 구동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AI 서비스 대중화 및 상용화의 걸림돌인 지연과 비용을 해결할 6G 네트워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KB운용, 밸류업 펀드 순자산 3000억 돌파

연초 이후 수탁고 936억 순증

밸류업 정책 수혜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KB자산운용의 밸류업 펀드 2종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KB자산운용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운용하는 ‘KB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펀드’와 ‘KB스타 코리아 밸류업 인덱스 펀드’ 등 밸류업 펀드 2종의 합산 순자산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KB자산운용의 밸류업 펀드 2종의 연초 이후 수탁고는 936억원 이상 늘어났다.

최근 1년 기준(A클래스) 인덱스형인 ‘KB스타 코리아 밸류업 인덱스 펀드’는 149.4%, 액티브형인 ‘KB스타 코리



아 밸류업 인덱스 펀드’는 150.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115.2%)을 웃돌고 있다.

‘KB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펀드’는 내부 리서치를 기반으로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종목에 선별 투자하는 상품이다.

/신하은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한남 정용기 사장(왼쪽에서 첫번째) 및 관계자로부터 전극보일러 설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남

지역난방공사, 에너지 전환 속도 전극보일러 등 기술 실증 본격화

20MW급 전극보일러 실증 운전 반도체 폐열 활용 시범사업 추진 정용기 사장 “탄소중립 목표 기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남)가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열 생산과 반도체 산업 폐열 재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GX)에 속도를 낸다.

한남은 전극보일러 실증사업과 반도체 산업 미활용열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탄소 열공급 체계 구축에 나섰다. 12일 밝혔다.

한남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잉여 전력을 열로 전환해 저장·활용하는 P2H(Power to Heat) 섹터커플링 기술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성지사에 20MW급 전극보일러를 지난 2월 준공했으며, 현재 실증 운전 중이다. 해당 설비는 출력 조정 범

위가 5~100%로 넓어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실증 과정에서 효율 99.61%, 열 생산 온도 122.79℃ 수준의 성능을 확인했다. P2H 기술은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간대의 잉여전력을 활용해 열을 생산·저장했다가 필요 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한남은 또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삼성전자와 협력해 경기 기흥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공정 방류수의 열을 회수하고 히트펌프로 온도를 높여 인근 지역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지역난방수와 열교환을 통해 공급하는 ‘변온·변유량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상용화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약 29% 감축과 함께 연간 약 6억 8000만원 규모 LNG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 발주 단계이며 2027년 7월 준공 및 상업운전이 목표다.

이날 현장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방문해 전극보일러 실증 현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용기 한남 사장은 “P2H와 반도체 미활용열 등 청정열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에너지 선도 기업으로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농식품부, ‘K푸드+’ 비관세장벽 대응

해외 현지 수입업체 애로사항 청취 규제 개선·단계별 지원 방안 마련

정부가 ‘K푸드+’의 비관세장벽 대응에 나선다. K푸드+란 농식품(K푸드)을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K푸드+ 수출지원을 위한 농업 분야 비관세장벽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삼공사 부여공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수출관련 협회 및 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해외 현지 수입업체의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접수된 사례 중 농식품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업계 불편 사항은 단기과제로 분류하여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 수출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중장기 과제는 애로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단기과제 중 신속히 처리되어 애로가 해소된 성과사례도 공유됐다.

딸기 품목의 경우, 수출국별·농약성분별로 허용되는 잔류농약 기준이 다르며 국가별로 각각 제공되어 농업인이 해당 기준을 일일이 찾아 비교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케이베리’(한국딸기수출통합조직)의 애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 농식품부 해외 주재관·파견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로를 접수해, 농촌진흥청과 협조해 현장에서 사용도가 높은 농약 성분을 선별하고 공통 기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수출 농가에 이달 말 배포할 예정이다.

배 품목의 경우, 수출 농가 대상 병해충 방제 교육이 농하기(2~4월)에 일반적인 내용으로 진행돼 실제 농가에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실제 농약을 살포하는 재배기간(5~7월) 중 현장 밀착형 질의응답을 통한 눈높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약안전사용 교육 계획을 개선했다.

김 차관은 “최근 중동상황 등 국제통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K푸드를 국가 수출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우리 농식품이 세계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수부, 해외 항만개발 지원사업 공모

내달 7일까지 신청 접수 ... 최대 3억

해양수산부가 ‘2026년도 해외 항만개발 시장 진출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사 등이 대상이다.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지원사업은 기업이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 등 해외 진출 관련 비용의 70%,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부터는 국내 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건수를 2건에서 3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해외 항만 개발 사업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이나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 협력지원본부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공도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강화되고,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가 늘어날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항만건설 관계자분들의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진출 문턱을 낮추고, 해외 항만 개발 시장 선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정위, 돼지고기 납품가격 담합 적발

육가공업체 9곳 과징금 31.6억 부과 “물가 위협하는 담합행위 감시 강화”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육가공업체 9곳이 입찰가격과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해오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국민 주요 식재료인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가격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재대상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엔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헤드림엘피씨 등 9개 업체다. 이 가운데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엔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일반육 입찰과 브랜드육 견적 제출 과정에서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각각 가격 담합을 벌였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입찰을 통해 돼지고기를 구매했는데,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14차례 입찰 중 8건(계약금액 약 103억원)에서 사전에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합의한 뒤 투찰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과 카카오톡 1대1

대화 등을 통해 가격 수준을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가공업체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브랜드육 납품과정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5개 업체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총 10차례(계약금액 약 87억원)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위별 가격 또는 가격 인상·인하 폭을 사전에 합의한 뒤 동일한 수준의 견적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건”이라며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밀가루·전분당·계란 등 식품 분야 담합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ISO 45001’ 인증

김인중 사장 중심 안전경영 역량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재해 없는 안전사업장’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공사는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인정받아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전국 각지에 분포한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KRC(농어촌공사)-EVERY 안심일터’ 전략을 수립·실행했다. 인공지능 C/C(폐쇄회로)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했으며, 소규모 현장과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밀착형 안전 조치도 함께 추진했다.

사장 중심의 확고한 안전경영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인중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사람 중심의 안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안전관리 강화 전담팀’ 발족하는 등 안전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27.5조... 학생 1인당 월평균 6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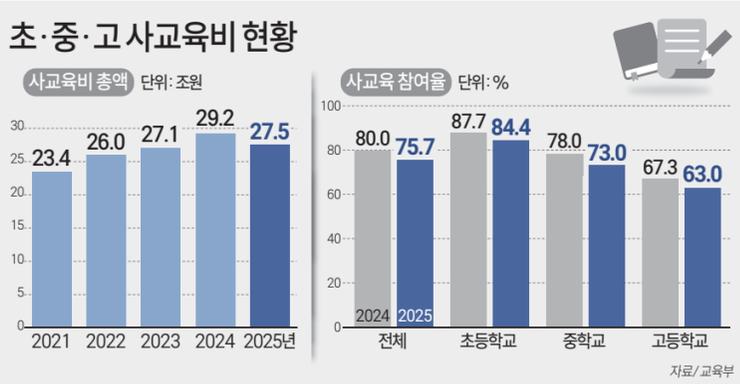
교육부,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
전년대비 총액·참여율 줄어들어
참여 학생 1인당 지출은 늘어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는 총액 기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줄며 팽창세가 꺾였지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지출은 60만4000원으로 2.0% 늘어나 부담이 참여층에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29조2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2조2000억원 ▲중학교 7조6000억원 ▲고등학교 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7.9%, 중학교 3.2%, 고등학교 4.3% 각각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75.7%로 1년 전보다 4.3%p 하락했고, 주당 참여시간 역시 7.1시간으로 0.4시간 줄었다. 학교급별 참여율은 ▲초등학교 84.4% ▲중학교



73.0% ▲고등학교 63.0%로, 주당 초등학교는 7.4시간 사교육에 참여, ▲중학교 7.2시간 ▲고등학교 6.6시간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생 수가 502만명으로 전년보다 12만명(2.3%) 줄어든 점까지 고려하면 올해 통계는 사교육 시장의 외형이 확실히 축소된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5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3만3000원 ▲중학교 46만1000원 ▲고등학교 49만9000원으로 모두 줄었다.

하지만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

만 놓고 보면 흐름은 다르다.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1만2000원 ▲중학교 63만2000원 ▲고등학교 79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7% ▲중학교 0.6% ▲고등학교 2.6% 모두 증가했다.

특히 학년별로는 전체학생 기준 고등학교 1학년이 53만4000원, 참여학생 기준도 고등학교 1학년이 80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전체학생 기준 5학년 47만2000원, 참여학생 기준 6학년 58만3000원, 중학교는 전체학생 기준 2

학년 46만6000원, 참여학생 기준 3학년 64만5000원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과목별로는 영어와 수학 풀림이 뚜렷했다. 일반교과 전체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영어 13만1000원 ▲수학 12만8000원 ▲국어 3만9000원 ▲사회·과학 1만9000원 순이었다. 참여학생 기준으로도 ▲영어 28만1000원 ▲수학 27만1000원 ▲국어 18만5000원 ▲사회·과학 16만6000원 순으로 높았다.

전체학생 기준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33만6000원으로 6.0% 감소했지만, 참여학생 기준은 59만5000원으로 7.9% 증가했다. 참여유형별로는 일반교과는 학원 수강이 전체학생 기준 26만7000원, 참여학생 기준 56만원으로 가장 높고, 개인과외(전체학생 3만1000원·참여학생 45만2000원), 그룹과외(1만8000원·32만5000원)이 뒤를 이었다.

총액 감소에도 격차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가구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구간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2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구간의 19만2000원보다 47만원 많았다. 참여율

도 800만원 이상은 84.9%, 300만원 미만은 52.8%로 32.1%p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맞벌이 가구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48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아버지 외벌이 44만4000원, 어머니 외벌이 30만7000원 순이었다. 참여율 역시 맞벌이 가구가 78.0%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생 성적 구간별로는 상위 10% 이내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1000원, 하위 20% 이내는 32만6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참여율도 각각 73.8%, 50.1%였다.

지역별로는 전체학생과 참여학생 모두 서울의 사교육비가 가장 높았다. 지출 구간별 분포에서도 월평균 70만~100만원 미만 비중이 13.9%로 가장 컸지만, 서울은 '100만원 이상' 비중이 가장 높아 지역별 편차도 확인됐다.

일반교과 수강 목적은 학교수업 보충이 49.5%로 가장 높았고, ▲선행학습 22.7% ▲진학준비 16.2%가 뒤를 이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노후도 조건 등 정비사업 규제 개선

역세권 사업제한 대상지 확대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 추진"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문턱은 낮추고 시민들의 알권리 증진,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 4건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제한 대상지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3가지 요건 가운데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과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 제외' 조건은 삭제되고, 앞으로는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기준만 적용된다.



서울시청 전경.

이를 통해 그동안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으나 기준상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대상지들에 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민간투자 건축물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막고자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규제철폐 153호)한 데 이어, 해당 규제 개선을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정보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등재함으로써 기존 제도가 미치지 못했던 규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시는 연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토지에 대한 중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협약에 수 관련 공모 기간 당초 35일에서 60일로 연장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기간 '최근 3년 이상'으로 단축(기준 4년)한다.

/이현진 기자

중앙대 'TeX-Corps' 사업 추진

중앙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TeX-Corps)'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중앙대는 향후 5년간 총 75억원(연간 약 15억원) 규모의 기술 창업 탐색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중앙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 기반 창업팀 발굴을 확대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창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창업탐색 단계부터 후속 사업화, 투자 연계, 기술이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유아고시' 사라진다... 교육부, 법적근거 마련

학원 설립·운영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선발성 시험과 수준별 배정 목적의 평가가 법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있다.

다만 모든 진단 행위가 일률적으로 금

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유아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수업 운영과 아동 발달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진단은 가능하도록 하되, 등록 전 선발이나 서류화를 위한 평가는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선발과 서류화를 위한 시험을 규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줄이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승인

반도체 인프라 확대, 항만물류기능 강화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확대와 평택항 물류 기능 강화 등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해 '2040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을 11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 도시의 성장 방향과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과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 이용, 인구·산업·환경·방재 등 장기적인 도시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 2040년 목표 인구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현재 65만 명에서 105만 4천 명으로 설정했다.

토지 이용 계획은 평택시 전체 면적 487.806㎢ 가운데 29.653㎢를 시가화에 전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104.516㎢는 시가화용지, 353.637㎢는 보존용지로 확정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지원

7.8억 투입... 내달 19일까지 신청 접수

성남시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7억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4월 19일까지 1학기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인 셋째 이상·미혼인 대학생이다. 거주 요건은 공고일(3월 10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성남시에

도시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응하고 동·서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도심 3지역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생활권은 동부와 서부 두 권역으로 구분해 동부는 반도체 특화단지과 산·학·연 클러스터 중심의 미래산업 거점으로, 서부는 친환경 수소 에너지 특화단지와 항만·산업도시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국가철도망 계획 등을 반영해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순환형 도로망과 권역별 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고, 공원·녹지와 생활 SOC 확충을 통해 시민 생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성은 "이번 계획 승인으로 철도역 개통에 따른 역세권 복합개발과 반도체 산업단지, 평택항 물류 기능을 연계해 평택이 수도권 남부 핵심 산업·물류 거점 도시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지급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으로 전입해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공고일 직전 주소지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이상돼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부모 직장 장학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등록금' 범위에서 지급되며, 학기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성남(경기)=유진혜 기자 yujin@

‘매출·재고에 잔반까지 관리’... AI가 매장운영 도맡는다

외식업계, AI 도입 확산
운영 효율·수익성 개선 본격화
한촌셀링탕 매장 데이터로 운영 진단
컨트롤엠 대화형 AI로 매장 분석
바른치킨 튀김 로봇으로 조리 자동화
아워홈 AI 잔반분석 등 급식 관리



바른치킨 조리로봇.

/바른치킨

식품·외식업계에서 오랜 기간 경험과 노하우에 의존해 운영해 왔던 매장 관리 방식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인건비 상승과 식재료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매장 운영 효율을 높이고 비용 구조를 정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그동안 외식업계는 조리 숙련도, 재고 관리, 발주 판단 등을 점주의 경험이나 현장 감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매장 운영의 이상 징후나 비용 구조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점포 간 운영 편차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주요 외식·급식 기업들은 AI와 디지털 전환(DX)을 기반으로 매장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경영 효율 개선에 나서

고 있다. 매출 분석이나 배달 관리 수준을 넘어 조리 과정 자동화, 음식물 폐기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셀링탕 프랜차이즈 한촌셀링탕은 매장 데이터를 통합해 운영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반 운영 진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은 매출 급감이나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조기에 감지해 본사와 점주가 합

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조리 시간 준수율, 배달 처리 지표, 고객 주문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매장별 운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도입한 이후 매장 운영 지표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배달 매출은 2024년 대비 2025년 9.9%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당 사장님을 위한 대화형 AI 서비

스도 있다. 푸드테크 기업 컨트롤엠은 외식 사업자 전용 대화형 AI 솔루션 ‘레스토지니 1.0’을 출시했다. 대형언어모델(LLM) 기반으로 매출·손익 분석, 광고 관리, 신메뉴 제안, 마케팅 전략 등을 대화 형태로 제공해 매장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관리 기능을 넘어 매장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해 광고 효율 개선이나 시즌 메뉴 추천 등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판단형 AI’ 모델을 표방한다. 첫 도입 사례로는 전국 6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에이바우트커피가 참여했으며, 본사는 매장별 매출 현황과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가맹점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바른치킨은 조리 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푸드테크 매장 모델 확대에 나섰다. 직영 플래그십 매장인 ‘여의도R점’에서는 관절형·레이형 튀김 로봇을 활용해 주문 접수부터 조리, 서빙까지의 과정을 자동화했다.

튀김 공정이 표준화되면서 조리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인력 의존도를 낮춰 매장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바른치킨은 매장 운영 데이터를 POS 시스템과

연동해 분석하고, 이를 가맹점 운영 효율을 높이는 표준 매장 모델 구축에도 활용하고 있다.

급식 분야에서도 AI 기반 데이터 관리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아워홈은 푸드테크 기업 누비랩과 협력해 ‘AI 기반 급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급식 후 발생하는 잔반을 AI가 자동 인식하고 계량해 데이터를 축적한 뒤, 메뉴와 시간대별 잔반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식재료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메뉴 구성과 급식 품질 개선에도 활용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음식물 폐기물 감소뿐 아니라 급식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해당 시스템 적용 사업장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과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매장 운영 진단, 조리 자동화, 재고·잔반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푸드테크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롯데칠성 ‘새로’, 제로슈거 소주 대표주자 우뚝

출시 3년여 만에 누적 판매 8억병 돌파 리뉴얼·팝업스토어 브랜드 확장 가속



롯데칠성음료의 제로 슈거 소주 브랜드 새로(사진)가 출시 이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소주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2022년 9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 슈거’ 콘셉트의 소주 새로운을 선보였다.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며, 소주 고유의 풍미를 살리기 위해 증류식 소주를 첨가했다. 투명병과 도자기의 곡선미에서 착안한 디자인을 적용해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출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목넘김이 부드럽고 향이 강하지 않아 마시기 편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판매 5000만병, 7개월 만에 1억병을 돌파했으

며 2025년 말 기준 누적 판매량은 8억병을 넘어섰다. 제품 라인업도 확대해 살구 과즙을 더한 ‘새로 살구’와 참다래 과즙을 활용한 ‘새로다래’ 등을 선보였다.

올해 1월에는 출시 이후 처음으로 리뉴얼을 단행했다. 제로 슈거 콘셉트는 유지하면서 기존 보리쌀 증류주 대신 100% 국산 쌀 증류주를 사용해 보다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을 강화했다. 여기에 BCAA(로이신·이소로이신·발린) 등 아미노산 5종을 추가해 맛의 균형을 높였으며, 병뚜껑과 라벨 디자인도 일부 개선했다.

리뉴얼을 알리기 위한 체험형 마케팅도 이어진다. 롯데칠성음료는 3월 21일

부터 4월 5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새로중앙박물관’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새로 소주 천년의 비법서’를 찾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방탈출 체험, 굿즈 제작, 디지털 협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앞서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팝업스토어도 꾸준히 운영해왔다. 성수·대진·부산·대구 등에서 진행된 체험형 공간과 압구정 팝업스토어 ‘새로도원’은 약 4만 명이 방문하며 관심을 모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수상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브랜드 캐릭터인 ‘새로구미’도 차별화 요소다. 구미호에서 착안한 캐릭터를 앞세워 스토리 중심의 광고와 콘텐츠를 선보이며 브랜드 세계관을 구축했다. 이러한 캠페인은 국내 광고 시상식과 아시아 광고제 등에서 수상하며 호평을 받았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호주서 ‘진로포차 멜버른’ 오픈

하이볼·칵테일 등 주류 라인업 다양화

하이트진로가 호주 멜버른에 브랜드 홍보 거점인 ‘진로포차 멜버른’을 열고 현지 시장 내 브랜드 접점을 강화하며 인지도 확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글로벌 식품 트렌드 수용도가 높은 멜버른을 호주 내 브랜드 현지화 거점으로 선정했다.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음식과 술을 함께 즐기는 한국 특유의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로포차 멜버른’을 기획하게 됐다.

진로포차 내부는 진로(JINRO) 브랜드의 상징 요소를 활용해 한국 포장마차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셉트로 꾸며졌다. 진로 소주의 상징인 두꺼비 피규어를 비롯해 소주병과 한정판 굿즈들을 매장 곳곳에 배치해 브랜드 정체성



호주 멜버른 진로포차에서 현지인들이 진로(JINRO) 제품과 테라 맥주를 음용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을 살리는데 중점을 뒀다.

진로포차는 진로 소주 제품과 테라 맥주 외에도 레귤러 소주와 과일 리큐어를 활용한 하이볼과 칵테일 메뉴를 개발해 차별화된 라인업을 구성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온, 쿠키런과 함께 ‘키즈 스카이런’ 진행

스카이런 특별 프로그램 3회째 운영 공식 티셔츠·메달·쿠키런 굿즈 증정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L.OTTE ON)은 오는 4월 19일 진행되는 국내 최고 높이의 수직 마라톤 대회 ‘스카이런’의 특별 프로그램 ‘키즈 스카이런’ 참가자를 모집한다.

‘스카이런’은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총 2017개의 계단을 오르는 국내 최고 높이의 수직 마라톤 대회로 롯데물산이 주최한다. 올해도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

진될 정도로 매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온은 보다 많은 고객이 스카이런을 경험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롯데물산과 함께 ‘키즈 스카이런’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키즈 스카이런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데브시스터즈의 인기 지식재산권(IP) ‘쿠키런’과 협업해 진행한다. 응모는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롯데온 키즈 스카이런 행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응모 대상은 어린이 보호자로 참석 가능한 성인 보호자다. 어린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9

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에 한한다. 세부 내용은 롯데온 행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에게는 스카이런 참가자와 동일한 공식 티셔츠와 더플백이 포함된 레이 스킵트를 제공하며, 완주 시 메달이 포함된 완주 키트를 증정한다. 키즈 러너에게는 쿠키런 특별 굿즈를 추가로 선물한다.

김은수 롯데온 엘타운(L.TOWN)팀 팀장은 “국내 최고 높이의 수직 마라톤 대회인 ‘스카이런’에서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도전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며 “봄 시즌 가족 단위 고객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CJ프레시웨이 ‘푸드 솔루션 페어’ 흥행 예고

사전등록 역대 최대 규모 기록

CJ프레시웨이가 개최하는 B2B 식품 산업 박람회 ‘푸드 솔루션 페어 2026’의 사전 등록 관람객 수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푸드 솔루션 페어 2026’의 사전등록 관람객 수는 행사 일주일 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120% 증가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관계자, 개인 사업자 등 산업 종사자 중심으로 신청이 크게 늘었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박람회에서 외식업 운영에 필요한 트렌드

와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외식 트렌드 세미나’에는 송길영 작가(‘시대예보’ 저자)를 비롯해 김성민 메티즌 대표, 남준영 티티티 대표 등이 참여해 시장 변화와 데이터 기반 트렌드를 소개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업계의 관심 속에 사전 참가 신청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외식 사업 운영 솔루션을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주방 업무 부담을 줄이는 조리 효율화 상품 활용 메뉴 시연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신원선 기자

‘뉴 한미’ 1년 만에 흔들... 박재현 연임 무산되나

〈한미약품 대표〉

오는 31일 주주총회에 안건 상정 4자 연합 균열 조짐으로 갈등 확산 유력 신임후보에 황상연 대표 물망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한미약품그룹.

한미약품그룹이 도입한 ‘선진 거버넌스 체제’가 흔들리고 지배구조에 적신호가 다시 켜졌다.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문경영인과 대주주가 조화를 이뤄내며 ‘뉴 한미’를 선포하고 1년 만이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그룹 최대주주 신동국 한미사이언스 기타비상무이사 등의 대립이 심화되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중재에 나섰다. 송영숙·임주현·신동국·라데팡스 등 4자 연합 균열 조짐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우선 송영숙 회장이 신임하고 있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연임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2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이사회를 열고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의 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한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한미약품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다.

이달 한미약품 이사회 10명 가운데 박재현 대표를 포함한 5인의 임기가 만료를 앞둔, 신규 이사 후보가 검토되고 있다. 김태균 감사위원 연임과 황상연 대표, 김나영 한미약품 신제품개발본부장, 채이배 전(前) 국회의원, 한태준 권

회는 김재교, 임주현, 임종훈 등을 비롯해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신동국 포함) 등으로 구성됐다.

또 한미사이언스 지분 구조는 송영숙·임주현·신동국·라데팡스 등 4자 연합이 52.63%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동국 이사 29.83%, 라데팡스파트너스 9.81%, 임주현 부회장 9.15%, 송영숙 회장 3.84% 순이다. 이밖에 에임중훈 이사는 6.46%를 가졌다.

다만 신동국 이사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개인 보유 22.88%, 한양정밀 보유 6.95% 등 총 29.83% 확보하고 있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와 함께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창업주 일가 경영권 다툼을 겪은 임종윤·중훈 형제의 움직임에도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신 이사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코리포항 외 5인으로부터 한미사이언스 주식 441만32주(6.45%)를 매입했다. 코리포항은 한미약품그룹 계열사 코리그룹의 한국지사로,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 임종윤 전(前) 한미약품 사내이사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신 이사와 임종윤·중훈 형제 측의 연대 재편성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4자 연합 내부에서는 이미 법적 공방도 진행 중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송영숙·임주현·킬링턴유한회사 측이 신 이사를 상대로 청구한 약 600억원 규모 위약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킬링턴유한회사는 라데팡스의 특수목적 법인이다.

4자 연합은 2024년 12월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의결권 공동 행사 등을 약속하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신 이사가 2025년 1월과 7월,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담보로 총 59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하면서 해당 계약 위반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

이처럼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4자 연합 내부 긴장 관계가 최근 박재현 대표 연임 문제로 표면화된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이번 한미약품 신임 대표 선임으로 ‘뉴 한미’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미약품그룹은 신약 개발 및 제약 사업은 전문경영인이 맡고 대주주는 이를 지원하고 견제하는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지속 밝혀 왔다.

한편 유력 후보인 황상연 대표가 한미약품 신임 대표로 등장할 경우 한미약품그룹은 창사 53년 만에 처음으로 ‘정통한 미켄’이 아닌 외부 인사를 맞이하게 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표 선임 결과가 한미약품그룹이 추진해 온 ‘뉴 한미’ 전문경영인 체제의 행방을 가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팜젠사이언스 고함량 멜라토닌 식물성 소재로 안심

솔루티 식물성 멜라토닌 5mg

팜젠사이언스는 휴식 관리 제품으로 ‘솔루티 식물성 멜라토닌 5mg’ (사진)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솔루티 식물성 멜라토닌 5mg’의 핵심 성분은 세인트존스워트에서 유래한 식물성 멜라토닌이다. 1정당 5mg의 고함량을 처방해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를 꾀했으며, 식물성 소재를 사용해 장기간 섭취에도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8종의 부원료를 복합 설계해 제품 기능성을 높였다. 마음의 안정을 돕는 L-테아닌, 자연 유래 멜라토닌이 풍부한 타르트체리, 평온함을 주는 캐모마일 및 레몬밤 등 허브 추출물은 물론, 신경 및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한 마그네슘, 비타민B6, 비타민B12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했다.

팜젠사이언스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헬스케어 제품군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팜젠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제품은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편안함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CDO 기술력·CMO 경쟁력 인정받아

〈위탁개발〉

〈위탁생산〉

표 바이오의약품 제조 콘퍼런스 참가 고농도 제형 의약품 등 CDO 역량 엔드 투 엔드 서비스로 어워드 수상



지난 11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바이오파마 엑셀런스 어워드(ABEA 2026)’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왼쪽)이 수상하며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오른쪽)가 시상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기술 콘퍼런스인 ‘아시아 바이오 의약품 제조 콘퍼런스 2026(BMA 2026)’에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농도 제형 의약품 개발 등 우수한 위탁개발(CDO) 역량을 적극 알리는 한편 ‘아시아 태평양 바이오파마 엑셀런스 어워드 2026(ABEA 2026)’에서 수상하며 탁월한 위탁생산(CMO) 경쟁력까지 인정받게 됐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BMA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컨설팅 기업인 IMAPACO이 후원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기술 행사다. 올해는 3월 11~

발센터 제형개발그룹장이 발표를 맡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농도 제형 의약품 개발 플랫폼인 에스-하이론을 활용한 주요 개발 사례 및 도전 과제와 극복 방법 등을 공유하는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요 CDO 서비스들을 소개했다.

2024년 출시된 에스-하이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다양한 제형 개발 경험을 활용해 고객의 고농도 제형 물질 개발을 돕는 플랫폼이다. 고농도 제형 의약품은 기존 저농도 제형 의약품보다 환자의 투약 부담이 적고 보관 및 운반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최근 시장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9종의 CDO 관련 기술 플랫폼을 확보했다. 에스-하이론을 비롯해 ▲물질 개발 가능성 평가 플랫폼 디벨롭 ▲자체 세포주 플랫폼

에스-조이스 ▲후보물질 임시 발현 플랫폼 에스-초지먼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초기 개발부터 임상시험계획(IND)까지 맞춤형 CD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ABEA는 지난 한 해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기업의 바이오 프로세싱, 물류, 공급망 관리는 물론 임상 시험 전문성, 기업 조직, 기술 등을 평가해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높은 수준의 공정 개발 기술, 세계적 수준의 품질 및 생산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바이오프로세싱 엑셀런스 인 코리아 어워드’를 수상했다. /이청하 기자

애경산업 ‘립센트’ 싱그러운 생화향으로 건조한 손 촉촉하게

‘생화향 퍼퓸 핸드크림’ 3종

애경산업은 퍼스널센트 바다케어 브랜드 립센트에서 건조한 손을 촉촉하고 향기롭게 가꿔주는 ‘생화향 퍼퓸 핸드크림’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립센트 생화향 퍼퓸 핸드크림은 프랑스산 고급 향료를 활용해 글로벌 향료사와 공동 개발한 립센트만의 시그니처 생화향을 담고 있다. 싱그러운 느낌을 전달하는 ‘플라워마켓 화이트 튜립 향’, 청초한 이미지를 구현한 ‘웨딩부케 핑크 피오니 향’, ‘나이트 블루밍 자스민 향’ 등 총 3가지 향을 한 데 구성했다.

또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퀴즈렌드넛오일, 호호바씨오일, 라벤더오일 성분을 혼합한 3-오일 콤플렉스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여기에 시어버터와 세라마이드 성분을 더해 건조한 손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관리할 수 있다. 민감한 피부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마치 꽃다발을 손에 쥘듯한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선사한다”며 “휴대가 간편해 향기가 필요한 순간 수시로 덧발라 향수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中 산업협력 기반 강화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 차이나’ 참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2~14일(현지 시간)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되는 ‘바이오 차이나 2026’에 참가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과 한·중 산업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바이오 차이나는 중국 바이오 산업 플랫폼 기업인 엔모어 바이오가 주최하는 중국 대표 제약바이오 전시·컨벤션 행사다. 중국 주요 제약사를 비롯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자, 연구기관 등 40여 개 국가에서 약 3만 명 이상

이 참여한다. 행사기간 동안 약 250여 개의 전문 포럼 세션과 400여 개 기업 전시, 5000건 이상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된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 및 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실제로 전 세계 기술이전 계약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약 4%대에서 2025년 3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

된다.

협회는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올해 처음으로 바이오 차이나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글로벌 기술거래 확대를 지원한다.

행사 첫날인 12일 쑤저우 국제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노연홍 한국 제약바이오 협회장이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청하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인디 뮤지션 등용문... KT&G, '밴드 디스커버리' 모집

올해 18회... 아티스트 활동기반 마련
상금·앨범 제작비 총 800만원 지원

KT&G 상상마당이 인디 뮤지션 발굴을 위한 음악 지원 프로그램 '2026 밴드 디스커버리' 참가자를 오는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밴드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은 2007년 시작돼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KT&G 상상마당의 문화공헌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54개 팀을 선정해 앨범 제작과 공연 기회 등을 지원하며 인디 뮤지션들의 활동 기반 마련에 기여해왔다. 특히, '윤마치(MRCH)', '지소쿠리클럽', '더 폴스' 등 '밴드 디스커버리'를 통해 발굴된 뮤지션들은 현재까지 다양

한 공연과 음반 활동을 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등록된 자작곡이 3곡 이상인 2020년 이후 데뷔 뮤지션으로, 장르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접수 방법과 자세한 정보는 KT&G 상상마당 및 라이브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팀은 상금 500만 원과 앨범 제작비 300만 원 등 총 800만 원 규모의 혜택이 제공되며, 팀별 단독 공연을 비롯해 상상마당 흥대 공연장 출연과 '상상실현 페스티벌 춘천', '라이브클럽데이' 등 다양한 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KT&G 김천범 문화공헌부 공연담당 파트장은 "밴드 디스커버리는 신인 뮤지션들이 자신의 음악을 대



'밴드 디스커버리' 포스터. 중에게 선보이고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 지원 사업을 통해 유망 아티스트 발굴과 인디 음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G 상상마당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들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지난 2005년 온라인 상상마당을 시작으로 흥대·논산·춘천·대치·부산까지 총 5곳에서 운영되며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상상마당은 연간 매년 3000여 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포스코청암재단, 한국유학장학 증서수여식
포스코청암재단은 1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제22회 포스코한국유학장학 증서수여식 및 졸업 환송식을 열어 신규 선발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한편 졸업 장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2026년 포스코한국유학장학 신입생 증서수여식 및 졸업 환송식 단체사진. /포스코홀딩스



호반건설·포스코이앤씨, 중간소음 통합기술 개발
호반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간소음 통합기술 공동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문갑 호반건설 경영부문의 대표(왼쪽)와 최종문 포스코이앤씨 R&D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반건설



HS효성첨단소재, 선수에게 탄소섬유 의족 지원
HS효성첨단소재는 11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박찬중 선수에게 탄소섬유 의족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박찬중 선수에게 탄소섬유 의족을 전달하고 있다. /HS효성



'카카오테크 부트캠프' 4기 교육생 모집
카카오는 실무형 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카카오테크 부트캠프' 4기 교육생 모집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테크 부트캠프에 참가한 수강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카카오



SOOP, 프로야구 중계 누적 시청자 200만 기록
SOOP(쇼)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진행한 스프링캠프 중계를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SOOP은 KBO 구단과 협업체 스프링캠프 연습경기를 생중계하며 비시즌에도 야구 콘텐츠를 제공했다. 이번 중계는 누적 시청자 약 200만 명을 기록했다. 사진은 SOOP 중계 모습. /SOOP

iM사회공헌재단, 사회복지사 후원금 전달

모임 지원하고 복리 증진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은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는 다양한 모임을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회원단체로, 사회복지사 권익지원 및 회원 복리 서비스, 여가·문화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다. iM사회공헌재단이 이날 전달한 후원금은 축구, 야구, 클래식, 산악자전거, 스테디클럽 등 13개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모임의 활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오른쪽)과 이한성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M금융
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황병우 iM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사와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는 ESG 사업을 추진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GEAN 어워드, LS일렉트릭 등 선정

e-모빌리티·미래산업 발전 기여
세계e-모빌리티협의회(GEAN)는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 발전 및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전략산업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기업 및 기관을 2026 GEAN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제주신화월드에서 열리는 제13회 국제e-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진행된다. '2026 GEAN 어워드' 수상 기관으로는 국내 에너지 솔루션 기업 LS일렉트릭, 중국 광저우 난사구청, 말레이시아전기차협회가 선정됐다. 세 기관은 각각 전동화 전환 및 e-모빌리티 인프라 확충, 스마트 시티 구현, 아세안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양성운 기자 ysw@

신한라이프, 배식봉사로 지역사회 실천

임원·신입사원 등 참석해 식사 대접
신한라이프는 지난 11일 임원 및 신입사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봄맞이 '따뜻한 마음 나눔' 배식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신한라이프가 전달한 1000만원의 후원금으로 복지센터를 방문한 약 1100여명의 어르신들

께 장어구이와 소고기국 등 환절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따뜻한 한끼 식사를 대접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임직원이 함께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이 어르신들께 따뜻한 하루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상생의 가치 실현에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수출입銀, 방산기업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

중소중견 기업 간담회 개최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경남 소재 기업 대상 '방산분야 중소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K-방산'이 거두고 있는 기록적인 수출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산업의 중추인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수은

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경남 지역의 주요 방산 유관 기업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업 참석자들은 지정학적 위기 고조, 원자재 가격 변동,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현장의 경영 환경을 공유하며, 정책금융기관의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역할을 당부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오늘의 날씨
3월 13일 (금)
음력 : 1월 25일
수도권 날씨 2 ~ 1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0/11, 동두천 -1/13, 가평 -1/11, 백령도 2/8, 파주 -2/12, 서울 2/12, 양평 0/12, 인천 2/11, 수원 3/12, 용인 3/12, 평택 0/1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근로감독정책담당 최관병 ◇국장급 승진 △근로기준정책관 서명석 ◇과장급 전보 △공공노사관계과장 임세희 △노사관계법제과장 강승헌 △고용차별개선과장 이태훈 △대전고용센터소장 김동욱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출입국정책담당장 박상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김정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4급) 전보 △동포체류통합과장 김세진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최병철
◆국가보훈부 ◇국장급 승진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이현욱

- 부음
▲임정재씨 별세, 임흥순(큐렉소 기술연구소 이사)·임철순(NH투자증권 ESG본부 상무)·임희라(삼성물산 경영지원팀)·임미라(AIG손해보험)씨 부친상, 김

- 귀곤(금오국립공과대학교 교수)씨 빙부상, 유미영·박민경씨 시부상=11일, 반포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40분, 수원시 연화장 추모의 집, 02-2258-5940
▲은하순씨 별세, 이기원(ITCEN CTS 상무)·이정우·이주한(LS증권 S&T사업부 대표)·이승희씨 모친상, 양민영·윤혜정(한성대학교 교수)·박은경씨 시모상, 윤광식(전남대학교 교수)씨 빙모상=11일, 서울성모장례식장 2호실(12일 오전 9시부터 14호실로 이동), 발인 14일, 02-2258-5953
▲김일남(전 서울보증보험 지점장)씨 별세, 송현희씨 남편상, 김경진(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김동진(공군 대위)씨 부친상, 서창호(법무법인 원곡 대표 변호사)씨 장인상 = 12일 오전 2시28분,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4일 오전 5시30분, 장지 용인 아너스톤, 02-6986-4440

대한민국 가요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대전역 앞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대한민국 1세대 원로가수 리싸이틀"이
2026년 3월 31일(화요일)부터 매일 원로스타들의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고향 아줌마
이정표 없는 거리
고향이 좋아

매주 금요일
김상진



대머리 총각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

매주 월요일
김상희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야 정말
장미빛 스카프

매주 화요일 윤항기



철없는 아내
청춘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매주 목요일
차도균



아버지의 대를 잇는 가수
차승민



배호 가요제
대상

매주 수요일
이명주 / 이호



짐이된 사랑
버팀목
보고싶어요

매주 수요일
이명주 / 이호



리싸이틀 사회
탤런트 이경영

마술공연



웃음콘서트

한글 혀 진동
웃음 건강운동

- 웃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 웃음치유의 효과
- 일상 속 웃음을 실천
- 웃음치료사 되기



한글 혀 진동 웃음
건강운동 창시자
황성현 원장

여행사 및 단체관람
문의 1544-3235

전쟁과 유가상승 대처법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지난 2월 27일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전날(26일) 배럴당 65.21달러이던 두바이산 유가는 3월 11일 기준 100달러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기대감이 줄어들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조기종식 가능성 발표로 전쟁의 장기화 우려가 감소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유가는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가 상승보다는 원유 수요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급을 충당하지 못할 우려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에 맞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의 수송통로가 막히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리적으로 보면, 폭이 33km인 대륙붕지대로 수심이 낮아,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항로 폭은 9km로 입항과 출항, 그리고 중간 완충 구역이 각각 3km로 되어 있다. 이런 좁은 항로에 대한 이란의 원유수송 선박에 대한 공격 위협은 세계원유수송량의 20~30%,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국내 수송량의 69% 원유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둘러싼 중동의 불안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과거 70년대에 겪었던 두 차례의 오일 쇼크 악몽이 되살아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든다. 미국과 이란전쟁이 3차 오일쇼크로 진행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필자가 보기엔 그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1~2차 오일쇼크 때는 미국이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였지만, 2010년대부터는 셰일가스 개발로 원유수출국이 되면서, 세계원유시장의 공급구조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다른 이유는 이란을 제외한 다른 중동국가들이 과거와 달리 미국과 호의적 관계로 유가 담합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로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신속한 출구전략을 추구함에 따라서 전쟁 장기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어찌 됐든 산유국이 아닌 우리 입장에 유가 상승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 건임엔 틀림없다.

이에 정부는 3월 9일 정유사와 주유사 간의 담합과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최고가격제도 도입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입 수단으로서 최고가격(price ceiling)통제는 실효성이 낮고 경제에 주는 부작용이 더 크다. 경

제학적으로 볼 때 정부의 인위적인 최고가격 설정은 초과수요와 더불어 공급 부족을 가져온다. 이는 누구한테도 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필자는 정책실패의 후유증 방지와 안정적 원유 수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유가 상승이 소비자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선 현행 적용하고 있는 휘발유 7%, 경유 10%의 유류세 인하에 대해 대폭적인 확대(예로, 20%)가 요구된다. 경기회복이 더디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 친화적인 유류세 확대 폭이 절실하다.

둘째, 20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정부 및 민간보유 전략비축분 방출을 활용하면서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부족분을 일시적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셋째, 에너지 절약 운동의 하나로써 승용차 요일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넷째, 과거 오일 쇼크 때의 원전이나 대체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한 예로서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소형 모듈원전(SMR)을 통해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주도하고 이를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키우는 것이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AI 인재 유출, 늦기 전에 막아야



기지수첩 차현정 (산업부)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테슬라에 합류하라”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SNS를 통해 한국을 꼭 집어 인재 영입 메시지를 던졌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인재를 향해 직접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이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웰컴 역시 한국 반도체 연구 인력을 주요 영입대상으로 보고 3D D램 연구개발 전문가 확보에 나섰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채용 경쟁을 넘어 인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기업들은 파격적인 연봉과 연구

환경,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내세워 한국의 우수 인력을 흡수하고 있다. 실제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4년 미국 취업이민 비자(EB1·EB2)를 받은 한국 고급 인력은 5847명으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핵심 두뇌들이 조용히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국내 기업들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LG는 사내 대학원을 설립해 직원들을 석·박사급 AI 전문가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대학과 협력을 확대하며 인재 선점에 나섰다. SK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AI 조직을 챙기며 젊은 인재를 전면에 배치하는 등 인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인재 유출의 뿌리는 훨씬 깊은 구

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공계 인재의 급격한 감소다. 한국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공학보다 의대를 선택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재 유출까지 겹치면 산업 경쟁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AI와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AI 시대에 인재는 더 이상 기업의 자산만이 아니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인재 확보 경쟁은 기업의 몫으로만 남겨져 왔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한국 기업이 인재를 지킬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재를 붙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AI 인재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클지 모른다.

/hyeon@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3일 (음 1월 2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쥐** 48년생 꾸준히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60년생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고마움을 느낍니다. 72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84년생 들떠 있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소** 49년생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61년생 외부로 나가는 것을 삼가세요. 73년생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면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85년생 모든 일에 새롭게 도전해 볼 때입니다.
- 호랑이** 50년생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62년생 마음속에 있는 작은 근심은 이제 버려야 할 때입니다. 74년생 멀리하는 사람과 부딪치게 됩니다. 86년생 모든 일에 새롭게 도전해 볼 때입니다.
- 토끼** 51년생 이상한 일에 휘말리게 되어 상처를 받습니다. 63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세요. 75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으세요. 87년생 모든 일에 피가 많으니 이루기 어렵겠습니다.
- 말** 52년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마세요. 64년생 금전 거래는 다음으로 미루세요. 76년생 혼사가 있겠으나 상대방이 까다로우며 고민입니다. 88년생 쓸데없는 접대는 낭비일 뿐입니다.
- 뱀** 53년생 오랜 끈기와 인내가 결실을 보게 됩니다. 65년생 평소 하던 방식을 변경하지 마세요. 77년생 지금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곧 전환될 것입니다. 89년생 되도록 길 밖으로 나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양** 54년생 이윤이 많은 거래 건이 성사됩니다. 66년생 다소 이루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78년생 가고자 하는 곳에 반가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0년생 늦은 귀가는 절대 피하세요.
- 양** 55년생 주위의 얄은 말을 듣고 격이지 마세요. 67년생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세요. 79년생 쇠를 끊을 정도의 힘이 생겨납니다. 91년생 누군가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 원숭이** 56년생 세상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68년생 준비된 자만이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집안이 화평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92년생 물가에 가려져서 조금만 미루세요.
- 닭** 57년생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69년생 건강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81년생 관계 구실을 조심하세요. 93년생 가까운 곳으로의 나들이는 길하나면 여행은 금물입니다.
- 개** 58년생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세요. 70년생 노력이 큰 성과를 보지 못합니다. 82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94년생 여행을 계획했다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 돼지** 59년생 배운 배려와 마음은 결국 되돌아옵니다. 71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세요. 83년생 길었던 방향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95년생 중심을 잡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상회의四季 기후와 조후

사주명조에 조후(調候)가 있다. 조후란 명리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꽃이 아름다워도 향기가 없으면 생명 없는 조화와 마찬가지로 사주구조에 있어 조후는 타고난 사주가 격이 좋아도 그 사주가 심분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무리 햇살이 좋아도 건조하면 피부가 금세 주글주글해져서 노화를 촉진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하여, 명리학의 3대 고전 중 하나로 알려진 ‘공통보감(窮通寶鑑)’ 등에서도 조후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인간들이나 동물 등 무릇 생명 활동을 하는 존재들에게는 추위와 더위의 적응과 대처가 매우 중요하듯이 사주의 오행 구성 역시 한란조습(寒暖燥濕)에 잘 대처하는 구조여야 인생이 수월하다는 것을 뜻한다.

즉 심간심이지는 모두 우주와 천지자연을 구성하는 음양오행인 목화토금수 각 요소를 배치하니, 태어나 살아가는 생명은 겨울에는 따뜻한 햇볕이 필요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필요하듯 각기 자신에게 필요한 조후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듯 인간의 사주 관명에 기후적 의미를 도입한 까닭은 바로 사물의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생성과 순환, 그 변화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 인간이 천지자연의 기운의 에너지 성질을 받아 태어난 집적체이니, 각자의 성질을 잘 알아서 조화와 순리에 따를 때 가장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격물치지(格物致知)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하는 것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물을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본질까지 알아야 만물을 이롭게 하는, 그러니 사계절의 영향 조후를 기후에 비유하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겨학원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프렌즈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4			8		2	1		
				2	1	4		9	
	8			6		5			
			2					6	
	5								
					9				
6		5		9				3	
4	3		1					5	6

					3		6	
3		4	2			7		
	7			1	5			9
6		1						8
		2					9	
			3				6	1
	5		9	3				7
		7			4	2		6
6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7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7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멀랏에 바치는 러브레터... 덕혼 빈야드의 반세기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15

“유행은 바뀌었지만 멀랏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멀랏에 공개 러브레터를 보낸 이는 덕혼 빈야드다. 멀랏 품종 와인이야 전 세계적으로 워낙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 웬 유난인가 하겠지만 사랑의 시작이 1970년대 엽음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찐사랑’이다. 그것도 카버네 소비뇽의 위상이 절대적이었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말이다.

덕혼 포트폴리오의 칼 코브니 수출 담당 이사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덕혼 빈야드의 역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꼽으라고 한다면 미국 멀랏 와인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이라며 “멀랏이 다른 품종을 보조하는 블렌딩이나 쓰이던 시절, 덕혼은 멀랏이 보여줄 수 있는 우아함과 구조감 등 남들이 보지 못한 잠재력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덕혼 포트폴리오의 칼 코브니 수출 담당 이사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50주년을 맞은 덕혼 빈야드의 와인을 소개하고 있다.

덴 덕혼과 마가렛 덕혼이 덕혼 빈야드를 설립한 게 1976년이니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당시 나파밸리에 와이너리가 40개에 불과할 정도로 와인업계가 막대 동하던 시기였다. 특히 같은 해 열린 ‘파리의 심판’을 계

기로 카버네 소비뇽과 샤도네이가 각광을 받았지만 덕혼 빈야드는 설립 초기인 1978년부터 멀랏을 주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었다. 덴과 마가렛 부부가 프랑스 보르도에서도 생페밀리옹과 뽀므를 지역을 여행하면서 멀랏 와인에 깊이 매료된 것이 계기가 됐다.

칼 이사는 “멀랏 와인은 레드 와인의 구조감이 있으면서도 과실미는 풍부하고, 좀 더 마시기 쉽다”며 “처음 출시 당시 나파밸리 카버네 소비뇽 와인이 5달러 안팎일 때 12달러로 가격을 책정한 것도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전했다.

덕혼 빈야드의 멀랏은 뽀므를 특유의 벨벳같은 질감과 함께 나파밸리 토양의 응집력이 더해지면서 신세계 멀랏 와인의 기준점이 됐다.

‘덕혼 쓰리 팜스 빈야드 멀랏’은 미국 최초의 싱글 빈야드 멀랏이다. 세 그루의 야자수(Three Palms)가 있다는 포도밭 이름처럼 따뜻한 경사지에 위치해 과실 품미가 풍부하고, 복합미와 농축미를 보여준다. 시음했던 2021 빈티지는 멀랏의 비중이 87%며, 카버네 소비뇽 11%에 말벡, 카버네 프랑 등이 들어갔다. 다소

이른 2021 빈티지임에도 마시기 편했고, 탄탄하면서 매끄러운 탄닌과 다층적인 품미가 입안을 가득 채웠다.

덕혼 쓰리 팜스 빈야드 멀랏 2014 빈티지는 지난 2017년 와인 스펙테이터가 선정한 100대 와인 가운데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와인 스펙테이터가 100대 와인을 발표한 이후로 멀랏을 주 품종으로 한 와인이 1위를 차지한 것을 덕혼이 두 번째일 정도로 흔치 않은 일이다.

안타깝게도 50주년을 맞은 올해 2월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인 덴 덕혼이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모든 와인 라벨에 오리를 새겨넣었던 덕혼답게 유가족들은 근조화환 대신 캘리포니아 물새 협회에 기부해달라고 부탁했다.

덕혼 포트폴리오는 나파밸리를 기반으로 한 덕혼 빈야드에서 출발해 이제는 11개 와이너리를 거느리고 있는 미국 최대 와인 브랜드 중 하나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사랑받는 디코이를 비롯해 패러덱스, 골드아이, 캔버스백, 칼레라, 코스타 브라운 등이 각각의 스타일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smahn1@metroseoul.co.kr



metro

문화 단신

롯데시네마, 지역 상생 복합문화공간 만든다

부산대·금정구청·상인회와 상생 협약

복합문화공간 컬처스퀘어를 지향하는 롯데시네마가 전남 부산대학교, 금정구청, 부산대상가총연합회와 손잡고 지역 상생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롯데시네마 오투 공간을 공연·전시·지역 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가 펼쳐지는 복합문화 거점으로 확장해, 지역 주민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대학·지자체·상인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학·관 협력 모델’을 통해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

심이다.

롯데시네마는 문화 행사가 가능한 시설 인프라를 제공하고, 각 기관은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지역 네트워크 연계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문화 수요와 상권 소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주민 참여형 문화 활동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역 인재와 상권, 문화공간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방문객 증가를 통한 상권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주말은 책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여는 AI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I)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보건산업과 AI의 융합 패러다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서 ‘AI시대 보건산업론’이 출간됐다.

2016년 AI 바둑 소프트웨어 알파고 공개를 기점으로 인류는 ‘새로운 AI 시대(New AI Era)’에 진입했다. 이후 2022년 11월 오픈AI가 공개한 챗 GPT는 AI를 일상과 비즈니스 전반에 활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 전환을 촉발했다. AI 폰, AI PC, AI 비서, AI 로봇, AI 휴머노이드 등이 전 산업에 구현되면서, 보건산업 역시 AI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받아들이는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AI는 신약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설계, 바이오마커 탐색, 약물 상호작용 예측 등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전 과정에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은 개발 기간을 30~50% 단축하고 비용을 25~50% 절감하는 효과가 입증됐다.

‘AI시대 보건산업론’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 교재로, 총 3장으로 구성됐다.

1장 ‘보건산업의 이해’에서는 보건산업의 정의와 주요 특징, 4차 산업혁명과 보건산업의 변화, 헬스케어 경제를 선도하는 보건산업 발전 성과, 글로벌 보건산업 시장의 잠재력과 전망을 다뤘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보건산업 전략과 정책, 그리고 혁신 엔진으로 부상하는 미국·유럽·아시아·한국의 보건산업 클러스터 사례도 상세히 분석했다.

2장 ‘주요 보건산업들’에서는 의료서비스· 제약·



AI시대 보건산업론

김용환, 김억현 외 3명/계축문화사

바이오헬스·의료기기·화장품·시니어케어 등 6대 핵심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글로벌 기업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최근 급성장한 바이오의약품 개요와 잠재력, K-뷰티로 대표되는 한류 기반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확장, 고령화 사회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시니어케어산업의 동향과 비즈니스 모델을 집중 분석했다.

3장 ‘AI시대 보건산업’은 이 책의 핵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헬스케어 산업의 생태계와 산업구조를 심층 분석했다. 피지컬 AI인 AI 헬스케어 로봇, 빅테크 기업의 AI 헬스케어 혁신 사례, 사회적·경제적 기대 효과까지 망라했다. 기존 보건산업 교재가 다루지 않았던 K-뷰티·시니어케어·디지털 헬스케어·AI 헬스케어 산업을 포함한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CGV, 한국 WBC 8강전 극장서 생중계

내일 오전 7시 30분 전국 12개관서 상영

CGV는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하 ‘2026 WBC’)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8강전 경기를 극장 단독으로 생중계한다고 12일 밝혔다.

CGV는 오는 14일 오전 7시 30분부터 미국 마이애미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8강전 경기를 CGV강변, 광주상무, 대구스타디움, 동수원, 서면, 연남, 영등포타임스퀘어, 왕십리, 용산아이파크몰, 인천, 창원대시티, 천안펜타포트 등 전국 12개 극장에서 생중계한다.

‘2026 WBC’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대항 야구 대회다. 총 20개국이 4개 조로 나뉘어 본선 1라운드를 치른 뒤 각 조 1·2위 팀이 2라운드(8강)에 진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9일 호주와의 경기에서 2점 이하 실점, 5점 차 이상 승리라는 조건을 충족하며 극적으로 8강에 진출했다. 8강전 상대는 12일 진행되는 도미니카공화국과 베네수엘라 경기 결과에 따라 D조 1위 팀으로 결정된다.

‘2026 WBC 극장 생중계’ 예매 및 자세한 정보는 CGV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유엔 안보리, ‘이란 공격 규탄’ 결의 채택... 휴전 촉구안은 부결 /사진 뉴스스 ▲JP모건 “헤지펀드들, 한국 비중 확대했다 중동 리스크에 역풍”

▲중동 전쟁의 숨은 승자는 러시아?... 혼란 틈타 이란 지원·헝가리 공작 ▲IEA “사상최대 비축유 방출” 유가는 5% 상승

▲미국 세일 업계, 이란 전쟁에 ‘화색’... 50년 만에 세일 정유소 건설 ▲캄보디아 “사기 작업장 모두 폐쇄”... 단속 중 한국인 13명 체포



매출에 재고관리
시가 매장운영
책임진다
니



Life

'뉴 한미' 선포
1년 만에 흔들
박재현 연임 못하나
L2



신뢰로 세운 금융의 본질... 영토 확장으로 리딩뱅크 굳힌다

CEO 와칭

이 환 주 KB국민은행장

금융상품이 아니라 '신뢰'를 판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1년 전 취임부터 강조한 말이다. 신뢰가 금융의 본질적인 기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리딩뱅크 탈환에도 성공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석과불식', 신뢰받지 못하는 KB는 존재할 수 없다는 '무신불립'에 이어 리딩뱅크 재탈환을 앞두고는 '중후표산(衆煦漂山)'을 언급했다. '여러 사람의 숨결이 모이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행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리딩뱅크 KB국민은행의 위상을 확실하게 다지는 2026년을 다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한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프로필

1964년 서울 출생
성균관대 경영학과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 MBA



- 1991년 KB국민은행 입행
 - KB금융지주 경영관리부장
 - KB국민은행 강남교보사거리지점장
 - KB국민은행 스타타워지점장
- 2013년 KB국민은행 영업기획부장
- 2016년 KB국민은행 외환사업본부장
- 2018년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대표 상무
- 2019년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대표 전무
- 2020년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대표 부행장
- 2021년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O) 부사장
- 2022년 KB생명보험 대표이사
- 2023년 KB라이프생명보험 대표이사
- 2025년~KB국민은행장

◆ 최초 계열사CEO 출신 은행장

이 행장은 1991년 입행 이후 강남교보사거리지점장·스타타워지점장·영업기획부장·외환사업본부장 등을 거치며 현장 영업과 기획 경험을 두루 쌓았다. 개인고객그룹 전무,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을 비롯해 지난 2021년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O) 부사장으로서 영업 중심의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균형감을 갖췄다.

탁월한 경영능력을 입증한 것은 KB라이프생명보험 대표를 지내면서다. 명확한 방향성과 비전 제시로 신속한 조직 정비와 프

계열사 대표 지내며 경영능력 입증
현장영업, 기획 등 다양한 경험 쌓아
신뢰·동행 키워드로 고객신뢰 공고히
고객중심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확장

순이익 1위... 4년 만에 리딩뱅크 탈환
금융 전환기 맞아 올해 전략목표 제시
영업방식 전환, 금융시장 확장 추진

로세스 혁신을 통해 푸르덴셜생명보험과 KB생명보험의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어 냈고, 요양 사업 진출 등 신시장을 개척했다.

은행장 후보로 지명된 당시 계열사대표이자 사후추천위원회는 "KB금융 계열사 최고 경영자(CEO)가 은행장이 된 최초 사례"라며 "조직의 안정과 내실화를 지향함과 동시에 지주와 은행, 비은행 등 KB금융 전 분야를 두루 거치며 탁월한 성과를 입증한 경영진이 최대 계열사인 은행을 맡아 은행과 비은행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KB금융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 금융상품이 아닌 '신뢰'를 판다

이 행장의 경영 키워드는 '신뢰'와 '동행'이다. 그는 은행장으로 내정된 첫 출근길에 '신뢰'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강조하며 은행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금융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약속과 의지를 표현했다.

취임 일성으로는 "단순히 금융상품을 파는 은행을 넘어 고객과 사회에 '신뢰'를 파는 은행"이 되자"고 강조했다. 그는 "엄격한 윤리의식과 정도영업을 바탕으로 국민은행은 확실히 다르다는 인식을 고객이 매 순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역시 고객신뢰를 확고히 하는 것을 경영의 출발점이자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의 기준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해 고객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은행의 전통적 강점인 리테일 금융은 물론 기업금융분야에서도 리딩뱅크라는 시장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4년 만의 '리딩뱅크' 탈환

시장금리 하락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KB국민은행은 이 행장 취임 이후 지난해 은행권 순이익

1위로 올라섰다. 4년 만의 리딩뱅크 탈환이다. 지주는 리딩금융그룹의 자리를 공고히 했지만 KB국민은행은 지난 2017년에서 2021년 4년간 리딩뱅크를 기록한 이후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KB국민은행의 작년 연간 순이익은 3조 862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늘면서 신한은행(3조 7748억원)과 하나은행(3조 7475억원)을 앞섰다.

순이자마진(NIM) 축소에도 이자이익은 늘었고,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대규모 총당금의 영향에서도 벗어났다.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와 투자금융수수료 이익은 확대됐다.

이 행장은 "금융의 대전환기를 맞아 과거의 전통과 관행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더 이상 '리테일 금융의 감자'라는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지 말고, 질박함과 신중함 속에서 새로운 고객과 시장으로 KB의 금융영토를 내실 있게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객과 사회 트렌드 변화에 맞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며 "단순히 고객 수를 늘리고 시장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KB국민은행의 전략적 지향점을 바꾸는 또 다른 혁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장은 올해 전략 목표로 '리테일 금융 1위를 넘어, 기업금융 리더십 확립과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한 넘버원 은행 위상 공고화'를 제시했다. 또한 전략 실행의 핵심 테마로 ▲비즈니스와 영업방식의 발전적 전환 ▲고객 및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 등을 꼽았다.

이 행장은 "KB국민은행 전략회의 2026"를 통해 "10년 후 금융업의 스탠더드(기준)가 될 수 있도록 가치를 높여가야 한다"며 "올해 소비자 권익과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경영전략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i@metroseoul.co.kr



서울 망원시장에서 열린 '2026 설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에서 이환주 KB국민은행장(오른쪽 첫번째)이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이환주 KB국민은행장(왼쪽 여섯번째), 박병곤 KB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왼쪽 두번째), 양영철 KB국민은행 WM 추진본부장(왼쪽 첫번째)과 KB골드라이프센터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메트로 한줄뉴스



▲한국, WBC 8강서 'D조 1위' 도미니카공화국과 격돌 /사진 뉴시스
▲한국계 메이저리거 오브라이언 WBC 합류 불발... 손주영 공백 둔 채 8강 치른다

▲1200만명 돌파한 '왕과 사는 남자'... 주말 1300만명 노린다
▲3월 A매치 앞둔 홍명보호, 명단 발표 직전 주말 K리거 최종 점검

▲한국 여자 농구, 독일과의 월드컵 최종 예선 첫 경기서 17점 차 패배
▲서울 첫 뉴미디어 공공미술관 '서서울미술관' 개관